

2023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

경기대학교 입학처
2023. 02.



2023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

경기대학교 입학처
2023. 02.



목 차

I.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문항	1
II.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3
1. 대학별 고사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이행 사항 점검 체크리스트 ...	3
2.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대학의 자체 규정	3
3.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조직 구성	6
4. 2023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 및 절차	7
III.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노력	8
1. 출제 전	8
2. 출제 중	18
3. 출제 후	19
IV. 문항 분석 결과	32
1. 문항 분석 결과 요약표	32
2. 문항 분석 결과	33
V. 대학입학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	50

부 록

〈부록 1〉 문항카드❶~❷	52
〈부록 2〉 KGU학생부종합전형 면접 예시문항	86
〈부록 3〉 논술우수자전형 응시자 대상 설문조사	88
〈부록 4〉 KGU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 응시자 대상 설문조사	89

표 목 차

<표 I -1>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총괄표	1
<표 II -1>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이행 사항 점검 체크리스트 ..	3
<표 II -2>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조직 구성	6
<표 II -3> 경기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별 고사 일정	7
<표 II -4> 경기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	7
<표 III -1> 논술 출제위원 연구회의 일정	8
<표 III -2> 2022년 모의논술고사 응시 현황	16
<표 III -3> 출제·검토위원 중 고교 교원 참여 비율	18
<표 III -4> 출제·검토과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	19
<표 III -5> 출제·검토 기간의 충분성	19
<표 III -6> 출제·검토 전 교육에 대한 만족도	20
<표 III -7> 선행학습 여부 분석 결과	21
<표 III -8> 선행학습 효과 인식 분석 결과	22
<표 III -9> 논술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 분석 결과	22
<표 III -10> 논술고사 제시문 수준의 인식 분석 결과	23
<표 III -11> 논술고사 난이도 인식 분석 결과	23
<표 III -12> 논술고사 시험시간 분석 결과	24
<표 III -13> 논술고사 제시문 길이 분석 결과	25
<표 III -14> 모의 논술고사 참여 여부에 대한 결과	25
<표 III -15> 모의논술고사와의 수준 비교 분석 결과	26
<표 III -16> 면접의 교과내용 포함 여부 분석 결과	27
<표 III -17> 면접관련 선행학습 효과 인식 분석 결과	28
<표 III -18> 면접에서 교과보다 심화된 지식 질문 여부 분석 결과	28
<표 III -19> 면접의 수준 인식 분석 결과	29
<표 III -20> 면접의 선행학습 유발 요소 포함 여부 분석 결과	30
<표 III -21> 면접평가에 대한 필요 여부 분석 결과	31
<표 IV -1> 문항 분석 결과 요약표	32

그림 목 차

[그림 Ⅲ-1] 논술 출제위원 연구회의	9
[그림 Ⅲ-2] 온라인 모의논술고사 실시 방법(개요)	17

I.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표 I -1〉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총괄표

평가대상	입학전형	계열	입학모집요강에 제시한 자격 기준 과목명	문항 번호	하위문항 번호	계열 및 교과										교과외
						인문사회			수학	과학				기타		
						국어	사회	도덕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논술 등 필답 고사	논술 우수자 전형	인문계 예체능계	공지한 바 없음	1	A-1	○										
				2	A-2		○									
				3	B-1	○										
				4	B-2		○									
면접 · 구술 고사	KGU 학생부 종합 전형 (일반)	인문계 자연계 사범계 예체능계		-	-										○	
	KGU 학생부 종합 전형 (SW 우수자 전형)	자연계		-	-										○	
	KGU 학생부 종합 (디자인 비즈)	예체능계		5	-									○		
적 · 인성 검 사	정시 일반 학생 전형 (유아 교육과)	사범계		6	적성		○									
				7	인성		○									

경기대학교가 실시한 2023학년도 대학별 고사 중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전형은 ①논술우수자전형 논술시험, ②KGU학생부종합전형(디자인비즈학부) 면접시험, ③유아교육과 적·인성 면접이 해당한다.

KGU학생부종합전형(일반)과 KGU학생부종합전형(SW우수자전형)은 지원자의 제출 서류(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진행하는 사실 확인 면접으로, 서류 진위 확인을 위한 신뢰성 검증 질문을 토대로 사회영역(인성, 공동체의식) 관련 질문, 잠재역량(전공(계열)관련 활동 및 경험,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성장가능성 등)에 관한 질문으로 유형을 나눌 수 있다. 교과지식과 관련된 질문은 묻지 않아 선행학습 영향평가 영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문항 분석은 진행하지 않는 대신 면접 예시 문항을 <부록2>에 공개한다. KGU학생부종합(디자인비즈)전형의 경우 학부 특성상 지원자들의 아이디어스케치 및 발표 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내용은 교과 지식과 관련된 부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지원자의 사고력과 표현력을 확인하기 위해 문제 출제를 하고 있어 본 자체평가의 대상에 포함하였다. 제시문은 고교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출 문항에 대하여 별도로 <문항5>에 내용을 제시하였다.

II.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1. 대학별 고사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이행 사항 점검 체크리스트

〈표 II-1〉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이행 사항 점검 체크리스트

구분	판단기준		
	항목	세부내용	이행 점검
대학별 고사 실시 관련 이행 사항 점검	1. 관련 자료의 홈페이지 게재	① 기간 내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 평가 보고서 공개 (문항과 답안 공개의 충실성)	○
		② 문항 총괄표 작성의 충실성	○
	2.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항목 준수	③ 문항 제출 양식(문항카드) 작성의 충실성	○
		④ 장별 내용 제시 여부	○
	3.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구성	⑤ 위원회의 외부위원 포함 여부	○
		⑥ 현직 고등학교 교사 포함 여부	○

2.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대학의 자체 규정

경기대학교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이하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학교규칙으로 선행학습 영향평가 관리 규정을 두고 있다. (규정번호 3(편) 7(장) 38(절)).

선행학습 영향평가 관리규정

제 1 조 (목적)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 및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제5조와 관련, 고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경기대학교 (이하 ‘본교’라 한다) 입학전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요소를 배제하고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전형을 운영함으로써, 고교 교육 정상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 정의) ① ‘선행교육’이란 초·중·고등학교에서 국가 수준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시·도 수준의 교육과정에 따라 편성·운영되는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을 말한다.

②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시·도 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는 범위와 수준의 내용을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① 본교 입학전형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요소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입학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총장이 추천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고교 교육과정 전문가, 현직 고교 교사, 학부모, 교직원 등) 3인 내외를 포함하여 총 4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입학처장으로 하고, 간사는 입학팀장 또는 입학사정관실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 4 조 (선행학습 영향평가) ① 본교가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학처장은 제1항의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영향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 따른 대

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입학처장은 제2항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하도록 한다.

제 5 조 (방법 및 절차)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 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

①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해당 전형이 종료된 후 시행한다.

② 교과 지식과 관련 없는 인성면접이나 학생부·자기소개서 기재 내용을 확인하는 면접 형태의 경우에도 평가를 진행하여야 하나, 이 경우 교과 지식과 관련된 면접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면접에 활용한 문항을 제시하여 이를 입증하는 것으로 평가를 대신할 수 있다.

③ 2항에서 문항을 제시하고자 할 때 학생별로 면접 문항이 다른 경우 대표적 사례를 제시한다.

④ 교과 지식을 직접 묻는 면접은 아니라도 교과 지식과 관련된 사항을 예시문으로 활용하거나, 이에 대한 문제 해결 과정을 측정하는 면접은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설문조사 또는 문항 평가, 출제의도, 채점기준, 모범답안 분석 등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에 따라 진행한다.

⑥ 영향평가 결과 본교의 입학전형이 고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출제되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다음 연도 대입전형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 6 조 (적용의 배제) 입학전형의 내용이 예체능 실기고사 또는 국가교육과정과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상 체육·예술 교과(군), 기술·가정 교과(군), 실과·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군), 전문 교과에 해당하는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 7 조 (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신설 2015.02.13.)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조직 구성

경기대학교는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조직 구성을 위해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 제2항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을 두었다.

제 3 조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 ① 본교 입학전형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요소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입학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총장이 추천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고교 교육과정 전문가, 현직 고교 교사, 학부모, 교직원 등) 3인 내외를 포함하여 총 4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입학처장으로 하고, 간사는 입학팀장 또는 입학사정관실 팀장으로 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는 위 규정에 의거하여 입학처장(위원장)을 비롯해 입학팀장(이상 당연직), 전임 교원 1명, 현직 고교 교사 3명을 합하여 총 6명으로 구성하였다. 위원 중 현직 고교 교사의 비율은 50%에 해당하며, 고교 교사 위원은 모두 일반 고등학교 교사이다. 2023학년도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구성은 아래의 <표Ⅱ-2>와 같다.

<표 Ⅱ-2>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조직 구성

연번	구분	성명	소속/직위	임기
1	위원장	김○○	입학처장	임기중
2	위원	김○	경기대학교 교수	2022.06.01. ~ 2023.05.31. <1년>
3	위원	강○○	일반고(배○고) 교사	
4	위원	김○○	일반고(불○고) 교사	
5	위원	우○○	일반고(원○고) 교사	
6	간사	정○○	입학팀장	임기중

4. 2023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 및 절차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은 <표 II-3>에 제시한 경기대학교 대학별 고사 일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진행일정은 <표 II-4>와 같다.

<표 II-3> 경기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별 고사 일정

구분	대상 전형명	계열	고사 일자
면접고사	[수시] KGU학생부종합전형	인문계, 자연계, 사범계, 예체능계	2022.11.26.(토) ~27.(일)
	[수시] SW우수자전형	자연계	2022.11.27.(일)
	[수시] 특수교육대상자전형	인문계	2022.11.26.(토)
논술고사	[수시] 논술우수자전형	인문계, 예체능계	2022.10.29.(토)
적·인성 검사 (면접)	[정시] 일반학생전형 (유아교육과)	사범계	2023.01.29.(일)

<표 II-4> 경기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

구분	일자
2022학년도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2022.06.01.
출제위원 연구회의	2022.07. ~ 2022.10.
대학별 고사 문항 분석 및 교사 자문	2022.10.27. ~ 10.29.
출제·검토과정에 대한 위원대상 설문조사	2022.10.29.
논술·면접에 대한 학생대상 설문조사	2022.10.30.~11.08. (논술고사) 2022.11.28.~12.05. (면접고사)
보고서 작성	2022.12. ~ 2023.02.
보고서 위원회 발송 후 검토의견서 접수	2023.02.
검토의견 반영 후 보고서 최종 점검	2023.02.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 (내부결재)	2023.02.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출 및 홈페이지 게재	2023.03.31.까지

Ⅲ.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노력

1. 출제 전

1) 고교 교육과정 분석

경기대학교는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준수한 문항 출제를 위해 논술 출제위원 연구회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고교 교육과정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출제·검토위원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1) 논술 출제위원 연구회의

논술 출제위원을 대상으로 총 9차에 걸친 논술 출제위원 연구회의를 진행하였다. 연구회의는 논술 출제기간 전인 2022년 7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이루어졌다. 회의의 내용은 2015개정 교육과정의 이해를 비롯해 2022년 논술 출제 방향, 유의사항 및 영역별 연구위원 문항 연구, 신규 출제위원의 분야별 주제 선정 방안 협의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표 Ⅲ-1〉 논술 출제위원 연구회의 일정

차수	일시	내용
1	2022.07.28.(목)	2015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2023학년도 논술 출제 방향 공유 및 유의사항 논의
2	2022.08.11.(목)	본교 논술 개념 설명 / 문제 출제시 유의사항 안내 기출문제 검토 / 문항구조 분석 및 이해
3	2022.08.30.(화)	영역별 주제 후보군 도출 주제별 지문 선정 및 상호 피드백
4	2022.09.06.(화)	분야별 주제 선정 방안 협의 문항검토 / 기출검토
5	2022.09.06.(화)	분야별 논술 주제 선정 결과 초안 공유 문항검토 / 기출검토
6	2022.09.15.(목)	영역별 모의 출제 문항 점검 / 영역별 피드백 개선사항 도출 / 향후 점검 포인트 공유
7	2022.09.23.(금)	기출문제 및 문항 검토 / 영역별 출제 지문 검토 영역별 피드백 / 향후 점검 포인트 공유

8	2022.09.27.(화)	영역별 모의 문제 공유 및 상호 피드백, 개선사항 논의 / 영역별 문제 출제 방향 합의
9	2022.10.11.(화)	영역별 논술 문제 최종 개선(안) 공유 및 상호 피드백



[그림 III-1] 논술 출제위원 연구회의

(2)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위원 대상 면접 및 고교이해 역량 강화 교육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에 앞서 면접위원에 해당하는 전입사정관과 위촉사정관을 대상으로 면접 및 고교 이해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교육의 주제는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평가의 이해를 비롯하여 면접평가시스템 교육 및 학교생활기록부를 활용해 직접 모의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시행해보는 것으로 면접평가의 실질적인 이해를 강화하였다.

또한 고교 이해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교육의 주제는 2015개정 교육과정의 이해를 비롯하여 고교유형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 이해, 고교학점제 및 성취평가제의 이해, 대입제도 및 대입전형의 이해 등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2) 출제·검토위원에 대한 고교 교육과정 사전 연수

경기대학교는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 제1항 ‘대학 등의 장은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근거하여 대학별 고사 출제·검토위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사전 교육의 주제는 2015개정 교육과정의 이해와 문항카드 작성에 관한 내용으로, 각 위원들 별로 출제 함속에 들어가기 전 실시하였다.

(1) 출제위원 사전 교육

- 일시 : 2022년 10월 24일 (월)
- 장소 : 경기대학교 입학처장실
- 대상 : 논술고사 문항 출제위원 (전임교원)
- 내용 : 2015개정 교육과정의 이해

(2) 검토위원 사전 교육

- 일시 : 2022년 10월 27일 (목)
- 장소 : 경기대학교 입학처장실
- 대상 : 논술고사 문항 검토위원 (고교교사)
- 내용 : 2015개정 교육과정의 이해와 문항카드 내용 구성 안내

※ 주요 변화

- 1) 기초, 탐구, 체육·예술 필수
이수 단위 교과 영역 구분 폐지
- 2) 필수 이수 단위 축소
(116단위 → 94단위)
- 3) 학교 자율 편성 단위 확대

9

10

학생의 성장 과정과 실제적 역량에 대한 평가 강조 →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요성 확대

11

12

출처: 교육부(2018), 2022학년도 고입제도 개편방안.

13

14

출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20),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공통기준, p. 7.

15

16

▶ **시골 기반 영점 평가 비준 확대 필요**

4. 대입 평가를 위한 입학사정관의 필요 역량



18

감사합니다.



(4) 검토위원 사전 연수 자료

2023학년도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정

● 2023학년도 대학별고사 교과별 적용 교육과정

▶ 2023학년도 대학별고사 적용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보통 교과(공통과목+선택과목) *전문교과 제외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기분	일반	선택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전문 선택 과목	
보통 교과	수학과 영어 교과외 선택 교과외 선택 교과외 선택 교과외 선택	수학과 영어 교과외 선택 교과외 선택 교과외 선택	수학과 영어 교과외 선택 교과외 선택 교과외 선택	수학과 영어 교과외 선택 교과외 선택 교과외 선택	수학과 영어 교과외 선택 교과외 선택 교과외 선택	
전문 교과	특성화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교육과정	특성화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교육과정	특성화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교육과정	특성화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교육과정	특성화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교육과정	

교육과정

● 2015 개정 교육과정 공통 및 선택과목 예시

교과 영역	교과(군)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전문 선택 과목
기초	국어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의 세계, 문학	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
	수학	수학	수학 I, 수학적 미적분, 확률과 통계	실용 수학, 기하, 경제 수학, 수학과제 탐구
	영어	영어	영어 회화, 영어 I,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 II	실용 영어, 영어영문 문화, 전문 영어, 영어 문법 읽기
탐구	사회(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	한국사 I, 세계사 I, 세계사 II,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역사지리, 사회문화 탐구, 고전과 윤리
	과학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물리학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물리과학, 화학과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융합과학

대학별고사 출제시 유의사항 안내

▶ 정확한 교육과정 문서 확보
▶ 교육과정 적용의 적확성 확보
▶ 정확한 출제 근거 자료 확보
▶ 검토 과정의 독립성 확보

정확한 교육과정 문서 확보

▶ 교육과정이 주기적으로 개정되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교육과정 문서를 확보해야 함. 교육과정 개정 결과 기존에 포함된 내용 중 일부가 축소되는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새로 개정된 교육과정 문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함.

▶ 현재 세 교육과정 종류가 고시되고 그에 따라 각론(교과별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함.

정확한 교육과정 문서 확보

구분	구분	구분
교육과정	1.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1) "과학과 교육과정"	2.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2) "도덕과 교육과정"
교과별	1.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3) "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4) "수학과 교육과정"
교과별	1.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5) "영어과 교육과정"	2.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6) "사회과 교육과정"
교과별	1.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7) "과학과 교육과정"	2.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8) "체육과 교육과정"
교과별	1.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9) "음악과 교육과정"	2.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10) "미술과 교육과정"
교과별	1.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11) "기술과 교육과정"	2.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12) "정보과 교육과정"
교과별	1.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13) "직업과 교육과정"	2.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14) "생활과 교육과정"
교과별	1.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15) "문화와 교육과정"	2.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16) "체육과 교육과정"
교과별	1.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17) "과학과 교육과정"	2.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18) "체육과 교육과정"
교과별	1.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19) "과학과 교육과정"	2.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20) "체육과 교육과정"
교과별	1.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21) "과학과 교육과정"	2.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22) "체육과 교육과정"
교과별	1.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23) "과학과 교육과정"	2.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24) "체육과 교육과정"
교과별	1.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25) "과학과 교육과정"	2.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26) "체육과 교육과정"
교과별	1.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27) "과학과 교육과정"	2.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28) "체육과 교육과정"
교과별	1.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29) "과학과 교육과정"	2.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30) "체육과 교육과정"
교과별	1.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31) "과학과 교육과정"	2.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32) "체육과 교육과정"
교과별	1.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33) "과학과 교육과정"	2.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34) "체육과 교육과정"
교과별	1.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35) "과학과 교육과정"	2.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36) "체육과 교육과정"
교과별	1.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37) "과학과 교육과정"	2.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38) "체육과 교육과정"
교과별	1.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39) "과학과 교육과정"	2.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40) "체육과 교육과정"
교과별	1.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41) "과학과 교육과정"	2.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42) "체육과 교육과정"
교과별	1.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43) "과학과 교육과정"	2.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44) "체육과 교육과정"
교과별	1.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45) "과학과 교육과정"	2.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46) "체육과 교육과정"
교과별	1.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47) "과학과 교육과정"	2.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48) "체육과 교육과정"
교과별	1.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49) "과학과 교육과정"	2.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50) "체육과 교육과정"
교과별	1.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51) "과학과 교육과정"	2.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52) "체육과 교육과정"
교과별	1.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53) "과학과 교육과정"	2.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54) "체육과 교육과정"
교과별	1.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55) "과학과 교육과정"	2.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56) "체육과 교육과정"
교과별	1.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57) "과학과 교육과정"	2.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58) "체육과 교육과정"
교과별	1.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59) "과학과 교육과정"	2.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60) "체육과 교육과정"
교과별	1.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61) "과학과 교육과정"	2.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62) "체육과 교육과정"
교과별	1.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63) "과학과 교육과정"	2.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64) "체육과 교육과정"
교과별	1.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65) "과학과 교육과정"	2.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66) "체육과 교육과정"
교과별	1.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67) "과학과 교육과정"	2.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68) "체육과 교육과정"
교과별	1.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69) "과학과 교육과정"	2.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70) "체육과 교육과정"
교과별	1.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71) "과학과 교육과정"	2.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72) "체육과 교육과정"
교과별	1.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73) "과학과 교육과정"	2.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74) "체육과 교육과정"
교과별	1.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75) "과학과 교육과정"	2.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76) "체육과 교육과정"
교과별	1.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77) "과학과 교육과정"	2.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78) "체육과 교육과정"
교과별	1.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79) "과학과 교육과정"	2.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80) "체육과 교육과정"
교과별	1.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81) "과학과 교육과정"	2.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82) "체육과 교육과정"
교과별	1.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83) "과학과 교육과정"	2.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84) "체육과 교육과정"
교과별	1.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85) "과학과 교육과정"	2.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86) "체육과 교육과정"
교과별	1.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87) "과학과 교육과정"	2.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88) "체육과 교육과정"
교과별	1.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89) "과학과 교육과정"	2.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90) "체육과 교육과정"
교과별	1.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91) "과학과 교육과정"	2.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92) "체육과 교육과정"
교과별	1.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93) "과학과 교육과정"	2.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94) "체육과 교육과정"
교과별	1.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95) "과학과 교육과정"	2.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96) "체육과 교육과정"
교과별	1.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97) "과학과 교육과정"	2.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98) "체육과 교육과정"
교과별	1.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99) "과학과 교육과정"	2. 교육과정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100) "체육과 교육과정"

● 교육과정 적용의 적확성 확보

- ▶ 교육과정 문서 중 각종 단서 조항(‘단순한’, ‘복합하지 않은’ 등)이 포함되어 있는 항목이 문항에 관련되어 있을 경우, 적확한 해석을 통해 문항의 교육과정 적합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 경우 낙관적인 판단을 경계해야 함.
- ▶ 이전 교육과정 중 삭제되거나 축소된 내용이 관련될 경우에도, 교육과정 적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정확한 출제 근거 자료 확보

- ▶ 교과서의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화’, ‘도전’, ‘더 알아보기’ 등과 같이 본문 이외의 내용에서 다루는 내용을 출제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됨. 가급적 다수의 교과서의 관련 내용을 출제 근거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함.
- ▶ EBS 교재를 출제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됨.

적용 교육과정 및 분석기준

적용 교육과정

● 2015 개정 교육과정

- ▶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 ▶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 한국사의 경우 2023학년도 대학별 고사 문항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적용 대상 교과목

● 적용 과목: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목

- ▶ 공통과목: 통합사회, 한국사(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신학)
- ▶ 일반선택과목: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 ▶ 전문선택과목: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 적용 과목: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목

- ▶ 일반선택과목: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 ▶ 전문선택과목: 고전과 윤리

분석 기준

- ▶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 ▶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평가기준(사회과, 도덕과)
(www.ncic.re.kr > 교육과정자료실 > 상하기준)

- ▶ 문항에서 제시한 자료 및 문항 내용의 교육과정 적합성
- ▶ 채점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의 교육과정 적합성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사회과 및 도덕과 교육과정의 주요 변화

● 교과목의 내용 변화

● 성취기준 변화: 한국사, 도덕과를 중심으로

● 신설교과목

교과목의 내용 변동

● 성취기준 변화: 기본 방향은 감축

- ▶ 한국 지리의 경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33개였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7개로 감축됨.
- ▶ 삭제된 성취기준도 있지만 추가된 성취기준도 있음.

● 내용 요소 변화: 기본 방향은 감축

- ▶ 성취기준 변경 또는 감축으로 인해 삭제된 내용 요소들이 있음.
ex: ‘경제’ 과목에서 탄력성 개념 삭제
- ▶ 삭제된 내용 요소도 있지만 추가된 내용 요소도 있음.
ex: ‘한국지리’ 과목에서 화산 및 카르스트 지형 관련 내용 추가

신설 교과목

● 예시 1> 통합사회

- ▶ 인간, 사회, 국가, 지구 공동체 및 환경을 개별 학문의 경계를 넘어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초 소양과 미래 사회의 대비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는 과목
- ▶ [108]A04-03) 사회의 소수자 차별, 청소년의 노동권 등 국내 인권 문제와 인권자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세계 인권 문제의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 예시 2> 고전과 윤리

- ▶ 고전에 대한 탐구와 성찰을 통하여 인문학적 소양과 바람직한 인성을 기르기 위한 과목
- ▶ [12]문03-03) 결과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에 대해 비판적으로 탐구하고, 롤즈가 주장한 정의의 원칙에 대하여 논리적 근거와 함께 자신의 견해를 제시할 수 있다.
(탐미론 - 형미론으로 사회를 위한 정의의 원칙)

신설 교과목

● 예시3> 사회문제 탐구

- ▶ 주제적이고 능동적인 탐구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개설된 과목
- ▶ [12사탐04-02] 통계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황을 분석하고, 사회문제 탐구 절차를 적용하여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탐구 계획을 수립한다.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표 11-3-1] 본·외국 통틀어 교육과정 교육과목				
출판·출판고	공통 과목	교육과목		
		일반 선택 과목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국어	국어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태세 문학 </div>	심층 국어 심화 국어 교차 국어	

김창형 외 (2015:35)

▶ 문法和 이과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 2016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임

▶ 공통과목 국어를 이수하고, 학생의 선택에 따라 일반선택과목과 진로선택 과목 이수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과목 구성

별책5_국어과 교육과정(제2015-74호)

[표 3-3-1] 문·이과 통합 국어과 교육과정 교과목			
종종·융합학교	공동 과목	고등학교	
		일반 교육 과정	신학 교육 과정
		국어·국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성경 국어 신학 영어 고전 읽기
국어	국어		

김창환 외 (2015:35)

➤ 실용 국어는 고등학교 졸업 후의 직업 생활을 위한 과목

➤ 심화 국어는 성경 학교 학습을 위한 과목

➤ 고전 읽기는 고전에 대한 심층적인 독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과목(교육과정만 있음)

[illegible][illegible][illegible]

문항카드 및 작성 예시

문항카드 작성 예시

● 일반 정보

▶ 핵심개념 및 용어는 출제 범위에 해당하는 교과목의 교육과정 문서와 연계하여 제시

1. 일반 정보					
위험	<input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신디컬고사				
전원명					
제1대 대학 정원(과목) / 문항명					
출제 범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padding: 2px;">교육과정 과목명</td> <td style="width: 50%; padding: 2px;"></td> </tr> <tr style="background-color: #FFC0CB;"> <td style="padding: 2px;">핵심개념 및 용어</td> <td style="padding: 2px;"></td> </tr> </table>	교육과정 과목명		핵심개념 및 용어	
교육과정 과목명					
핵심개념 및 용어					
배정 소요 시간					

문항카드의 구성 요소

<p>01 일반 정보 유형, 난이도, 문항 번호, 출제 시기, 해당 수준, 관련 기제</p>	<p>05 문항 해설 답안 작성방법(문항 해설)을 설명, 적절히 설명이 어려울 경우 답안지</p>
<p>02 문항 및 자료 문항, 자료 등을 제시</p>	<p>06 채점 기준 여러 문항별 세부 채점 요소와 준거, 배열, 유의 사항 등을 제시</p>
<p>03 출제 의도 평가 요소와 출제 의도를 제시</p>	<p>0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여러 문항별 예시 답안 혹은 정답 제시</p>
<p>04 출제 근거 교과과정, 연계(특성) 교과과정, 관련 생활(직업), 자료 출처 표시</p>	

문항카드 작성 예시

● 4. 출제 근거

▶ 가. 「교육과정」 제시

- 적용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 교과명, 과목명, 성취기준,
—관련 문항 및 자료 표기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학교 교육과정	<p>과목명 교육과정 편찬 위원회</p> <p>1. 교육과정 편찬 위원회 “차등 교육 과정”</p> <p>2. 교육과정 편찬 위원회 “차등 교육 과정”</p> <p>3. 교육과정 편찬 위원회 “차등 교육 과정”</p>	
관련 문항	<p>유형별 OOO 유형 “이론 문제, 단답형 문제, 선택형 문제, 서술형 문제, 실험 문제, 탐구 문제, 문제풀이 문제”</p>	000
관련 문항	<p>1. [문제1] ... (문제 내용) ...</p> <p>2. [문제2] ... (문제 내용) ...</p> <p>3. [문제3] ... (문제 내용) ...</p>	000
관련 문항	<p>1. [문제1] ... (문제 내용) ...</p> <p>2. [문제2] ... (문제 내용) ...</p> <p>3. [문제3] ... (문제 내용) ...</p>	000

3) 모의논술 고사 실시

경기대학교에서는 논술우수자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실제 논술고사와 유사한 환경을 미리 체험해봄으로써 논술고사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시켜 사교육 유발요소의 최소화에 기여하고자 모의논술고사를 실시하였다.

모의논술고사를 실시하기 전 고교방문 입학설명회와 연계하여 논술우수자전형을 소개함과 동시에 모의논술에 대하여 알림으로써 사전홍보를 진행하였으며, 모의논술고사 안내 공문을 전국의 고등학교로 발송하여 참여를 유도하였다.

모의논술고사의 문제는 본교 전임교원 2인이 출제한 2022학년도 논술고사 예비문제를 활용하여 실제 논술고사와 유사한 유형으로 출제하였다. 국어영역과 사회영역 각 1문항씩 총 2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교과서에 나온 제시문이나 주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쓸 수 있는 문제로 출제하였다.

모의논술고사는 COVID-19의 확산세를 고려하고, 다양한 지역과 규모의 학생들에게 체험 기회를 마련하고자 온라인 방식으로만 진행하였다. 지원자가 응시기간 안에 자유롭게 시간대를 선택하여 온라인 응시 페이지에 접속하되, 제한시간(120분) 내에 답안을 작성한 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고사가 종료된 후 본교 전임교원 2인이 영역별로 채점을 실시하였으며 응시자 모두에게 채점 결과를 제공하여 자신의 실력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모의논술고사 문제와 출제위원의 문항해설 및 채점기준을 입학처 홈페이지에 안내하여 본교 논술고사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모의논술고사를 통하여 지원자들이 논술고사의 출제경향 및 문제유형, 난이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온라인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정보 소외지역(읍·면 소재지) 고교의 정보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

구체적인 모의논술고사에 대한 개요 및 진행과정은 아래의 [그림 III-2]와 같고, 응시결과는 <표 III-2>과 같다.

<표 III-2> 2022년 모의논술고사 응시 현황

구분	온라인 모의논술
지원인원(명)	200
응시인원(명)	180
응시율(%)	90



[그림 III-2] 온라인 모의논술고사 실시 방법(개요)

2. 출제 중

1) 출제·검토위원 중 고교 교원 참여 비율

경기대학교는 2018학년도부터 꾸준히 논술고사의 문항 출제 과정에서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검토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0학년도까지는 한 명의 교사가 검토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2021학년도부터 2023학년도 현재까지 두 명의 교사가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III-3〉 출제·검토위원 중 고교 교원 참여 비율

대학별고사 유형	대학 교원	고등학교 교사	합계
논술고사	7 (78%)	2 (22%)	9 (100%)

2) 고교 교원의 출제·검토과정에서의 권한 강화를 위한 조치

본교의 검토위원은 대학별고사 문항 및 제시문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출제 문항의 적절성과 난이도에 대해 점검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의 어휘를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함으로써 준수여부를 판단한다.

대학별고사의 검토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검토위원은 2022년 10월 27일에 사전 교육을 이행한 후 출제 장소에 합류하여 논술고사 문항 및 제시문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다.

검토위원이 문항과 제시문이 고교 교육과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시, 문항 수정을 제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3. 출제 후

1) 출제·검토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보완을 위한 개선 노력

(1) 출제·검토과정에 대한 자체 평가 실시 여부 및 내용

경기대학교는 출제·검토 과정에 대한 점검을 위해 출제 위원 7명과 검토 위원 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총 3개의 문항으로 ‘출제·검토과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 ‘출제·검토기간의 충분성’, ‘출제·검토 전 교육에 대한 만족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표 III-4>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응답자 모두가 출제·검토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III-5>를 보면 출제·검토기간이 충분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15개정 교육과정 이해를 위해 실시한 사전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역시 <표 III-6>과 같이 대부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 출제·검토과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

문항내용		빈도	%
출제·검토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9	100
	그렇다	0	0.0
	보통이다	0	0.0
	그렇지 않다	0	0.0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전체		9	100

<표 III-5> 출제·검토 기간의 충분성

문항내용		빈도	%
출제·검토기간은 충분하였습니까?	매우 그렇다	8	88.9
	그렇다	1	11.1
	보통이다	0	0.0
	그렇지 않다	0	0.0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전체		9	100

〈표 III-6〉 출제·검토 전 교육에 대한 만족도

문항내용		빈도	%
출제·검토 전 고교 교육과정에 이해를 위한 교육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8	88.9
	그렇다	1	11.1
	보통이다	0	0.0
	그렇지 않다	0	0.0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전체		9	100

(2) 전년도 출제·검토과정에 대한 개선 실적

전년도에 이어 2023학년도 논술고사 검토위원을 국어·사회 교과목 각 1명씩 총 2명의 고교교사로 구성하여 본교에서 시행하는 인문계열(국어, 사회) 논술문제 출제 문항 및 검토과정에서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 점검을 강화하였다.

또한 검토위원의 합숙 전 사전연수에서 2015개정 교육과정의 이해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문항카드 작성 내용과 방법에 대한 교육을 추가로 진행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다.

2) 수험생 대상 선행학습 유발 요소 및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경기대학교 2023학년도 수시전형의 논술(논술우수자전형)과 학생부종합(KGU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대학별 고사의 선행학습 유발 요소 및 영향에 대해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은 모두 온라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논술(논술우수자전형) 수험생들 중 1,374명과 학생부종합(KGU학생부종합전형) 수험생들 중 1,621명이 응답하였다. 각 설문의 양식은 <부록 3>, <부록 4>를 통해 공개하며, 설문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논술우수자전형 수험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대학교 진학을 위한 논술전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행학습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논술전형을 준비하며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넘는 개념 등을 학습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다.

〈표 Ⅲ-7〉 선행학습 여부 분석 결과

문항내용		빈도	%
논술전형을 준비하며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넘는 개념 등을 학습하였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99	7.2
	그렇지 않다	260	18.9
	보통이다	407	29.6
	그렇다	431	31.4
	매우 그렇다	177	12.9
전체		1,374	100

이에 대한 응답자 1,374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Ⅲ-7〉에서 알 수 있다. “논술전형을 준비하며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넘는 개념 등을 학습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렇다’가 31.4%(431명)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다’ 29.6%(407명), ‘그렇지 않다’ 18.9%(260명), ‘매우 그렇다’ 12.9%(177명), ‘전혀 그렇지 않다’ 7.2%(99명) 순으로 나타났다. 위 내용에 따르면 응답자의 44.3%(608명)는 논술전형을 준비하며 고등학교 범위와 수준을 넘는 개념을 학습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본교 논술전형을 위한 선행학습 효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교 논술전형은 고등학교 교과 내용보다 심화된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다. 그 결과를 〈표 Ⅲ-8〉에서 살펴보면 ‘보통이다’가 30.6%(420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 26.0%(357명), ‘그렇다’ 25.5%(351명), ‘매우 그렇다’ 11.5%(158명), ‘전혀 그렇지 않다’ 6.4%(88명) 순으로 나타났다.

본교 논술전형이 고등학교 교과 내용보다 심화된 학습이 필요한지에 관한 질문에 ‘보통이다’와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높은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보통이다’ 응답까지 포함하면 63.0%(865명)의 응답자가 경기대학교의 논술전형은 고등학교 교과 내용보다 심화된 학습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과반수가 넘는 학생들이 경기대학교 논술을 준비하는데 고등학교 교과 수준을 넘는 학습은 크게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8〉 선행학습 효과 인식 분석 결과

문항내용		빈도	%
본교 논술전형은 고등학교 교과 내용보다 심화된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88	6.4
	그렇지 않다	357	26
	보통이다	420	30.6
	그렇다	351	25.5
	매우 그렇다	158	11.5
전체		1,374	100

실제로 학생들이 느끼는 논술고사의 체감 난이도와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논술고사 문제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기본 개념들을 이용하면 충분히 서술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9〉 논술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 분석 결과

문항내용		빈도	%
논술고사 문제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기본 개념들을 이용하면 충분히 서술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37	2.7
	그렇지 않다	161	11.7
	보통이다	395	28.7
	그렇다	549	40
	매우 그렇다	232	16.9
전체		1,374	100

〈표 III-9〉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다’는 응답이 40.0%(549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다’ 28.7%(395명), ‘매우 그렇다’ 16.9%(232명), ‘그렇지 않다’ 11.7%(161명), ‘전혀 그렇지 않다’ 2.7%(37명) 순으로 나타났다.

본교 논술고사 문제가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기본 개념들을 이용하면 충분히 서술할 수 있는 내용들에 긍정적인 응답을 한 순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보통이다’ 응답까지 포함한 경우 응답자의 85.6%(1,176명)가 고등학교 교과서 기본 개념을 이용하여 서술이 가능하였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

로 볼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경기대학교의 논술고사 문제는 고등학교 교과서의 기본 개념들을 이용하면 충분히 서술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10〉 논술고사 제시문 수준의 인식 분석 결과

문항내용		빈도	%
논술고사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제시문에 충분히 제공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69	5
	그렇지 않다	194	14.1
	보통이다	452	32.9
	그렇다	468	34.1
	매우 그렇다	191	13.9
전체		1,374	100

〈표 III-10〉는 논술고사의 제시문 수준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논술고사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제시문에 충분히 제공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다’ 는 응답이 34.1%(468명)로 가장 높으며 ‘보통이다’ 32.9%(452명), ‘그렇지 않다’ 14.1%(194명), ‘매우 그렇다’ 13.9%(191명), ‘전혀 그렇지 않다’ 5.0%(69명) 순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다’ 의 응답까지 포함한 경우 80.9%(1,111명)의 응답자가 논술고사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제시문에 제공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다수의 응답자는 경기대학교 논술고사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제시문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11〉 논술고사 난이도 인식 분석 결과

문항내용		빈도	%
논술고사 논제의 어휘나 표현이 요구사항을 이해하는데 어려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207	15.1
	그렇지 않다	462	33.6
	보통이다	384	27.9
	그렇다	233	17
	매우 그렇다	88	6.4
전체		1,374	100

〈표 Ⅲ-11〉는 논술고사의 난이도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논술고사 논제의 어휘나 표현이 요구사항을 이해하는데 어려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그렇지 않다’ 응답이 33.6%(462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다’ 27.9%(384명), ‘그렇다’ 17%(233명), ‘전혀 그렇지 않다’ 15.1%(207명), ‘매우 그렇다’ 6.4%(88명) 순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다’ 응답까지 포함한 경우 76.6%(1,053명)의 응답자가 논술고사의 논제의 어휘나 표현이 요구사항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선택한 것으로 볼 때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인식하는 경기대학교 논술고사 논제의 어휘나 표현 등에 대한 체감 난이도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이 없거나 보통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12〉 논술고사 시험시간 분석 결과

문항내용		빈도	%
논술고사의 시험시간(120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24	1.7
	그렇지 않다	62	4.5
	보통이다	174	12.7
	그렇다	542	39.4
	매우 그렇다	572	41.6
전체		1,374	100

〈표 Ⅲ-12〉는 논술고사 시험시간이 충분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논술고사의 시험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 41.6%(572명), ‘그렇다’ 39.4%(542명), ‘보통이다’ 12.7%(174명)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그렇지 않다’ 4.5%(62명), ‘전혀 그렇지 않다’ 1.7%(24명)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술고사 시험시간이 충분히 제공되었다고 인식한 응답자의 비율이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서 81.0%(1,114명)로 나타났고, ‘보통이다’ 응답까지 포함하면 응답자의 93.7%(1,288명)가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기대학교 논술고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공되는 논술고사 시험시간(120분)은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충분히 제공되었다고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III-13〉 논술고사 제시문 길이 분석 결과

문항내용		빈도	%
논술고사 제시문의 길이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18	1.3
	그렇지 않다	50	3.6
	보통이다	175	12.7
	그렇다	683	49.7
	매우 그렇다	448	32.6
전체		1,374	100

〈표 III-13〉는 논술고사 제시문의 길이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논술고사 제시문의 길이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그렇다’ 49.7%(683명), ‘매우 그렇다’ 32.6%(448명), ‘보통이다’ 12.7%(175명), ‘그렇지 않다’ 3.6%(50명), ‘전혀 그렇지 않다’ 1.3%(18명)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2.3%(1,131명)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를 합하면 95.0%(1,306명)의 응답자가 논술고사 제시문의 길이가 정보를 충분히 제시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경기대학교 논술고사 제시문의 길이가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표 III-14〉는 경기대학교에서 실시한 모의논술고사 참여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표 III-14〉 모의 논술고사 참여 여부에 대한 결과

문항내용		빈도	%
본교에서 실시한 모의 논술고사에 참여하였습니까?	예	386	28.1
	아니오	988	71.9
전체		1,374	100

본교에서 실시한 모의 논술고사 참여여부에서는 ‘예’라고 28.1%(386명)가 응답하였고, ‘아니오’라고 71.9%(988명)가 응답하였다.

위 설문에서 ‘예’ 라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 논술고사와 모의논술고사의 수준에 대해 비교하고자 “모의논술고사에 참여하였다면, 실제 논술고사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Ⅲ-15〉 모의논술고사와의 수준 비교 분석 결과

문항내용		빈도	%
본교에서 실시한 모의 논술고사와 실제 전형에서의 논술고사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22	5.7
	그렇지 않다	88	22.8
	보통이다	128	33.2
	그렇다	112	29.0
	매우 그렇다	36	9.3
전체		386	100

설문결과 〈표 Ⅲ-15〉과 같이 “본교에서 실시한 모의논술고사가 실제 논술고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라는 질문에서 ‘그렇다’ 와 ‘매우 그렇다’ 고 응답한 학생이 38.3%(148명)로 나타났고, ‘보통이다’ 는 33.2%(128명)로 나타나 응답자의 71.5%(276명)가 모의 논술고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모의논술고사에 응시하였던 많은 학생들이 경기대학교가 사전에 실시한 모의논술고사의 난이도와 실제 논술고사의 난이도가 대체로 비슷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논술고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모의 논술고사가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KGU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 수험생 대상 설문조사 분석 결과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행학습을 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을 준비하며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넘는 개념 등을 학습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고 결과는 <표 III-16>과 같다. ‘그렇다’ 40.5%(656명), ‘매우 그렇다’ 30.5%(494명), ‘보통이다’ 18%(291명), ‘그렇지 않다’ 8.9%(145명), ‘전혀 그렇지 않다’ 2.2%(35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그렇다’ 와 ‘매우 그렇다’ 라는 응답이 71.0%(1,150명)로, ‘보통이다’ 는 응답까지 합하면 89%(1,441명)의 학생이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넘는 개념을 학습하였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을 준비하면서 고등학교 범위와 수준을 넘는 개념 등을 학습하였음을 보여준다.

<표 III-16> 면접의 교과내용 포함 여부 분석 결과

문항내용		빈도	%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을 준비하며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넘는 개념 등을 학습하였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35	2.2
	그렇지 않다	145	8.9
	보통이다	291	18
	그렇다	656	40.5
	매우 그렇다	494	30.5
전체		1,621	100

이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을 위한 선행학습 효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교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은 고등학교 교과 내용보다 심화된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고, 결과는 <표 III-17>와 같다. ‘보통이다’ 31.8%(516명)의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그렇다’ 26.2%(424명), ‘그렇지 않다’ 24.2%(392명), ‘매우 그렇다’ 12.5%(203명), ‘전혀 그렇지 않다’ 5.3%(86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그렇지 않다’ 와 ‘전혀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한 지원자는 29.5%(478명)이고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경우를 합하면 과반수가 넘는 61.3%(994명)의 응답자가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을 준비하는데 고등학교 수준을 넘는 학습은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17〉 면접관련 선행학습 효과 인식 분석 결과

문항내용		빈도	%
본교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은 고등학교 교과 내용보다 심화된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86	5.3
	그렇지 않다	392	24.2
	보통이다	516	31.8
	그렇다	424	26.2
	매우 그렇다	203	12.5
전체		1,621	100

다음으로는 경기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에 대하여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와 면접에서 제시된 질문이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준수 여부에 대한 인식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면접에서 받은 질문 중, 교과보다 심화된 지식을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18〉 면접에서 교과보다 심화된 지식 질문 여부 분석 결과

문항내용		빈도	%
면접에서 받은 질문 중, 교과보다 심화된 지식을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173	10.7
	그렇지 않다	504	31.1
	보통이다	426	26.3
	그렇다	383	23.6
	매우 그렇다	135	8.3
전체		1,621	100

분석 결과 <표 III-1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고등학교에서 배운 교과보다 심화된 내용 지식을 알아야 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였고 ‘그렇지 않다’ 31.1%(504명), ‘보통이다’ 26.3%(426명), ‘그렇다’ 23.6%(383명), ‘전혀

‘그렇지 않다’ 10.7%(173명), ‘매우 그렇다’ 8.3%(135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학생들은 41.8%(677명)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라고 응답까지 합하면 68.1%(1,103명)의 학생이 면접질문이 교과보다 심화된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기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에서 교과 수업 참여 관련 사항이 적혀 있는 세부능력 특기사항 등에 대한 질문에서 과반수의 학생들은 교과 지식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교과 수업 참여에 대한 확인사항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19〉 면접의 수준 인식 분석 결과

문항내용		빈도	%
면접에서 받은 질문이 고등학교의 사고 수준에서 답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시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6	0.4
	그렇지 않다	25	1.5
	보통이다	174	10.7
	그렇다	783	48.3
	매우 그렇다	633	39
전체		1,621	100

면접의 수준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면접에서 받은 질문이 고등학교의 사고 수준에서 답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III-19〉와 같다. 응답 결과는 ‘그렇다’ 48.3%(783명), ‘매우 그렇다’ 39%(633명), ‘보통이다’ 10.7%(174명), ‘그렇지 않다’ 1.5%(25명), ‘전혀 그렇지 않다’ 0.4%(6명) 순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다’까지 포함하여 98%(1,590명)의 학생들이 면접 질문이 고등학교의 사고 수준에서 제시되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볼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경기대학교 면접에서 제시된 질문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사고 수준에서 충분히 답을 할 수 있었던 면접 질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Ⅲ-20〉 면접의 선행학습 유발 요소 포함 여부 분석 결과

문항내용		빈도	%
면접에서 받은 질문의 내용이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를 중심으로 제시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6	0.4
	그렇지 않다	13	0.8
	보통이다	104	6.4
	그렇다	507	31.3
	매우 그렇다	991	61.1
전체		1,621	100

면접의 선행학습 유발 요소 포함 여부를 알아보는 “면접에서 받은 질문의 내용이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등 제출 서류를 중심으로 제시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Ⅲ-20〉와 같다. 응답 결과 ‘매우 그렇다’ 61.1%(991명), ‘그렇다’ 31.3%(507명), ‘보통이다’ 6.4%(104명), ‘그렇지 않다’ 0.8%(13명), ‘전혀 그렇지 않다’ 0.4%(6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그렇다’ 와 ‘매우 그렇다’ 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학생은 92.4%(1,498명)이고, ‘보통이다’ 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98.8%(1,602명)의 학생이 면접 질문이 제출서류를 중심으로 제시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KGU학생부종합전형의 면접 질문내용이 제출서류(학생부 및 자기소개서) 기반의 면접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경기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데 별도의 선행학습의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방법 중 면접평가에 대한 필요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과정에서 면접평가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고, 응답결과는 〈표 Ⅲ-21〉과 같다.

〈표 III-21〉 면접평가에 대한 필요 여부 분석 결과

문항내용		빈도	%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과정에서 면접평가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25	1.5
	그렇지 않다	45	2.8
	보통이다	242	14.9
	그렇다	621	38.3
	매우 그렇다	688	42.4
전체		1,621	100

〈표 III-21〉의 분석 결과 ‘매우 그렇다’ 42.4%(688명), ‘그렇다’ 38.3%(621명), ‘보통이다’ 14.9%(242명), ‘그렇지 않다’ 2.8%(45명), ‘전혀 그렇지 않다’ 1.5%(25명)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학생은 80.7%(1,309명)이고, ‘보통이다’ 응답까지 포함한 경우 95.6%(1,551명)의 학생이 면접평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볼 때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면접이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과정에서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Ⅳ. 문항 분석 결과

1. 문항 분석 결과 요약표

〈표 IV-1〉 문항 분석 결과 요약표

대학 별 고사 유형	전형명	계열	문 항 번 호	하위 문항 번호	교과별 교육과정 과목명	교육 과정 준수 여부	문 항 불 입 번 호
논술 등 필답 고사	논술우수자 전형	인문계 / 예체능 계	A형	A-1 (언어)	독서, 국어, 문학	○	❶
				A-2 (사회)	통합사회, 경제, 한국지리	○	❷
			B형	B-1 (언어)	국어, 문학	○	❸
				B-2 (사회)	통합사회, 세계사	○	❹
면접 고사	KGU학생부종합 전형 (디자인비즈학부)	예체능 계	-	-	미술	○	❺
적· 인성 검사	정시 ‘다’ 군 유아교육과	사범계	적 성	-	사회문화	○	❻
			인 성	-	사회문화	○	❼

2. 문항 분석 결과

• 자문위원 별 분석 대상 문항

구분	담당 교과	분석 대상 문항
자문위원 A	언어	문항카드 ❶, ❸
자문위원 B		
자문위원 C	사회	문항카드 ❷, ❹
자문위원 D		

1) 문항카드 ❶ (논술우수자전형A-1[언어])에 대한 문항 분석

① 자문위원 A

문항 및 자료에 대한 분석
<p>○ 문항에 관한 분석</p> <p>[문항 1] (가)와 (나)의 시에서 (다)의 ‘슬픔’의 정서가 문학적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각각 서술해 보시오. (700 ± 50자)</p> <p>이 문항은 간결하면서도 명료한 논제로 표현되었다. 두 편의 시를 이해한 후 (다)에서 말한 핵심을 “슬픔”의 정서로 제시하여 수험생이 쉽게 출제의 방향성과 의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문학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형식인데 여기서는 슬픔의 정서가 문학 작품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다는 분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고교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다뤄지는 내용으로 학생들은 별 어려움 없이 논제를 해석하고 출제의 의도를 파악했을 것으로 판단한다.</p>

○ 자료에 대한 분석

(가)는 장석주의 <대추 한 알>, (나)는 월명사의 <제망매가>, (다)는 백석의 <여수 박팔양 씨 시초 독후감>이다. 세 편 모두 고등학교 교과서 [독서, 국어, 문학]에서 선정한 작품으로 평이한 수준의 작품을 선정하였다. (가)에서 붉은 대추와 둥근 대추를 통해 내면의 세계를 시인이 통찰하여 세상과의 소통을 일깨우고 있다. (나)는 누이의 죽음에 대한 인간의 슬픔을 승화하는 주제로 표현된 향가이다. (다)에서는 시인이란 슬픔을 통찰하면서 곧 즐거움을 얻게 되는 문학 작품의 본질을 알게 하는 내용이다. (다)를 통해서 (가)와 (나)를 해석하여 서술하도록 한 것은 고교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무난하게 해석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데 별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출제 의도 및 근거, 문항 해설, 채점 기준 및 항목에 대한 분석

○ 출제 의도 및 근거의 적절성

문학 작품은 인간의 갈등적 요소를 주요 소재로 다루고 있다. 특히 시의 세계에서 시인은 대상의 본질과 슬픔의 정서가 곧 시의 정신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파악하도록 한 것은 문학의 기본적인 요소이므로 고교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도달하는 데에도 기여하는 문항으로 판단한다.

현행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을 반영하여 독서, 국어, 문학 등에서 제시한 성취기준 항목을 반영하여 논술고사를 출제하였으며, 각 기준을 평가 요소로 연결하고 있다. 또한, 출제 자료는 모두 고교 교과서를 바탕으로 선정했으므로 별도의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세 작품의 내용이 선명하고 논제가 간결하여 출제 의도와 근거가 학생에게 어렵지 않게 전달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 문항 해설의 적절성

(다)에서 시의 정신을 슬픔으로 핵심을 밝히고, 존재의 모습을 찾아가는 시의 형상화를 설명하고 공감과 연민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해설

을 통해 학생들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가)에서는 의인적 수법을 통해 존재의 모습, 공감과 연민 등을 통해 가을 대추의 형상화를 설명하고 있다. (나)에서는 비유적 수법을 통해 누이의 죽음을 연민의 정을 통해 표현하고 이를 만남이란 초월적 종교의 세계로 연결하여 슬픔을 승화하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연계는 (다)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가)와 (나)의 연계성을 잘 표현한 해설이므로 매우 적절한 해설이다.

○ 채점 기준 및 항목의 적절성

채점 기준은 5단계 평가로서 명시적으로 요건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있다. 특히 이 문제에서 (다)의 핵심 개념 파악이 중요하므로 이를 근거로 B와 C를 구분함으로써 내용의 중요도를 근거로 채점 기준을 마련했음을 알 수 있다. 채점의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한 기준으로 판단된다.

채점 기준의 각 항목을 보면 핵심어 슬픔, 공감, 연민, 동일시 등을 중심으로 이해력과 분석력, 추론력을 평가항목으로 설정하여 출제 의도를 반영한 기준으로 적절하다.

② 자문위원 B

문항 및 자료에 대한 분석

○ 문항에 관한 분석

‘(가)와 (나)의 시에서 (다)의 ‘슬픔’의 정서가 문학적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각각 서술하라’는 문항은 ‘슬픔’의 정서가 타자에 대한 공감과 연민이며 슬픔의 수용과 승화라는 시의 정신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슬픔’의 정서가 개별 시 작품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 양상을 서술하라는 문항이다. 이러한 문항은 고등학교 국어과 학습활동에서 빈번히 사용되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문항을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할 수 있어 교육과정의 범위를 준수한다고 하겠다.

○ 자료에 대한 분석

(가) 장석주의 ‘대추 한 알’, (나) 월명사의 ‘제망매가’, (다) 백석의 ‘여수 박팔양 씨 시초 독후감’은 모두 고등학교 국어과(국어, 문학, 독서) 교과서에 실린 작품이다. 세 작품은 모두 ‘글에서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글이 주는 즐거움과 깨달음을 수용하며 감상적으로 읽는다’라는 국어과 성취기준을 구현한다. ‘여수 박팔양 씨 시초 독후감’에서 시인은 ‘높은 슬픔’을 지닌 존재로 타자에 대한 공감과 연민의 정서를 지니며, 인생의 슬픔을 수용하고 승화한다. ‘대추 한 알’의 화자는 대추의 성장에 뒤따르는 고난에 공감하고 대추 성장의 과정에 자신을 투영하며 인생의 참모습을 깨닫는다. ‘제망매가’의 화자는 누이와의 사별의 슬픔을 인생의 유한성에 따른 보편적 슬픔으로 수용하고 종교적으로 승화한다.

출제 의도 및 근거, 문항 해설, 채점 기준 및 항목에 대한 분석

○ 출제 의도 및 근거의 적절성

‘문학을 통한 깨달음을 수용하고 내면화하는 감상적 독해’는 문학 활동의 본질이다. 문학 작품을 읽고 감동과 깨달음을 얻는 것은 감정이 정화되는 과정이자 삶을 성숙하게 하는 특별한 경험이므로 자아를 성찰하고 계발하는 역량을 키우는 국어과의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출제 의도이다.

○ 문항 해설의 적절성

‘여수 박팔양 씨 시초 독후감’에서 ‘슬픔’이란 타자에 대한 공감과 연민, 정서적 동일시를 의미하며, 정서적 동화를 통한 타자와의 합일(合一)이라고 해설한다. ‘대추 한 알’에서 화자는 대추가 성장하며 겪었을 고난과 역경에 대한 공감과 연민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대추 속에 투영하며, ‘제망매가’에서 화자는 생명의 유한성이라는 존재 보편의 숙명에 대한 절절한 공감과 연민을 미타찰에서 만남이라는 종교적 초월과 합일을 통해 극복한다고 해설한다. 이러한 문항 해설에 사용되는 어휘와 내용의 수준이 무난하

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중심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글을 스스로 퇴고하는 데에 적절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교육과정의 범위를 준수한다고 하겠다.

○ 채점 기준 및 항목의 적절성

〈채점항목〉 ①~③은 제시문에서 반드시 파악해야 할 핵심 내용이고, ④는 논제에 명시적으로 드러난 항목이고, ⑤는 어문 규정과 답안의 분량이므로 채점항목으로서 객관성을 확보한다. 〈채점기준〉 A는 채점항목을 모두 충족한 것을 전제로 하며, B와 C는 채점항목을 모두 충족하되 그 완성도에 따라 차등을 두며, D와 E는 채점항목의 누락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었으므로 채점 기준의 명확성을 확보한다. 다만, 요건 B는 ‘② 또는 ③’ 으로, C는 ‘① 또는 ④’ 로 수정되면 더욱 체계적이겠다.

2) 문항카드 ② (논술우수자전형A-2[사회])에 대한 문항 분석

① 자문위원 C

문항 및 자료에 대한 분석

○ 문항에 관한 분석

해당 문항은 도시 문제와 인구 이동에 관련된 현상을 보여주는 서로 다른 자료를 공간 불평등이나 지역 개발과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문항으로, 고1 공통 과목인 통합 사회의 핵심 주제였던 산업화, 도시화 개념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선택 과목인 한국 지리 및 경제 등에서 다루어지는 핵심 질문과 연관지어 제시된 자료에 대한 분석과 추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 있으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별도의 사교육 도움이 없더라도 누구나 논술 전형에 대비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면서도 개인별 학업 역량에 따라 신장시켜 온 고등 사고 능력을 변별해 낼 수 있도록 질문과 제시문을 복합적인 체계에 맞춰 구성하였음.

○ 자료에 대한 분석

문항에서 자료로 활용된 제시문은 고등학교 1학년생이 공통적으로 배우는 통합사회 과목의 교과서 내용을 제시문(가)로, 한국지리 교과서에 있는 이촌 향도 현상에 따른 노년층 인구 분포 변화 관련 지도 자료를 제시문(나)로 각각 구성하고, 경제 교과서의 슈바베 지수에 대한 내용인 제시문(다)를 참고로 (가)와 (나)에 나타난 이동 현상의 차이를 해석해보도록 한 뒤, 지역 개발의 파급 효과나 역류 효과에 대한 도표가 제시된 제시문(라)와 연관지어 (나)의 현상을 확장적 사고로 설명해 보도록 하고 있음.

중점적인 분석 대상인 (나)의 이촌 향도 현상과 노년층 인구 분포 변화 지도의 출처가 선택 과목인 한국지리로 표기되어 있긴 하지만, 그 내용은 고1 통합사회 교과서의 산업화와 도시화 주제에서 충분히 다루어졌던 내용인 점을 감안하면 선택 과목 이수에 따른 유불리 문제가 없는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누구나 무난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자료가 제시되었다고 생각됨.

(가)와 (나)를 비교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자료인 제시문(다)와 이촌 향도 현상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키기 위한 기초인 제시문(라)의 경우 선택 과목인 경제나 한국 지리의 지문이나 도표를 활용했지만 그 내용은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학생들이 추론에 활용할 수 있는 정도로 이해 가능하게 가공하여 풀어쓴 점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학생들이 쌓아온 이해력과 더불어 새로운 상황으로의 적용이나 사고의 전이 능력을 동원하는 확장적 사고의 흐름을 나타낼 수 있도록 배치하고 있음.

출제 의도 및 근거, 문항 해설, 채점 기준 및 항목에 대한 분석

○ 출제 의도 및 근거의 적절성

문항의 출제 의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용에 근거하여 핵심 질문과 연관된 내용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고 질문의 의도를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음.

○ 문항 해설의 적절성

문항 해설의 경우 제시문(가)부터 제시문(라)까지 각각 어떤 내용을 나타내는지 순서대로 설명을 한 다음, (가)와 (나)에 나타난 이동 현상의 차이를 (다)의 주거비 부담을 기초로 주거비 부담이 낮은 곳을 찾아가는 현상과 주거비 부담이 높은 쪽으로 찾아가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고1 통합사회부터 경제에 이르는 학습 과정에서 이촌 향도 현상을 소득이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이해해 왔기 때문에 이를 주거비 부담이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는 표현이 낯설게 느껴졌을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를 주거비가 높지만 소득이 더 높일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는 표현으로 해설을 해주어야 학생에게 친절한 설명이 될 것으로 사료됨.

제시문(라)와 관련지어 (나)의 현상을 살펴보는 과정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역 개발 특징으로 성장 거점 개발이 이루어져 주요 대도시 중심으로 발전이 집중되는 역류 효과가 나타나 지역 간 격차가 커졌다는 표현이 논리적 추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는 친숙한 논리적 사고의 흐름으로 받아들여지는 좋은 해설이었음.

○ 채점 기준 및 항목의 적절성

채점 기준과 항목에 있어서는, (다)의 주거비 개념을 기초로 (가)와 (나)에 나타난 현상의 차이점을 해석하라는 질문에 대한 채점 기준 1개, (나)의 현상을 (라)와 연관지어 설명하라는 질문에 대한 채점 기준 2개, 기타 어문 규정 등에 대한 기준 1개 등이 제시되어 있어 문항에서의 질문이 대등한 것처럼 보일 경우 두 질문에 대한 응답이 비슷한 비중으로 작성될 가능성이 있는 점에서 질문 별로 채점 기준도 동일하게 1개 또는 동일하게 2개로 제시되었어야 다음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가이드 라인을 분명히 제시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사료됨.

② 자문위원 D

문항 및 자료에 대한 분석
<p>○ 문항에 관한 분석</p> <p>이 문항은 우리나라 도시 및 농촌, 슬럼가와 도심 간의 공간 불평등 현상을 현행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주거비’와 관련된 개념을 활용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문제점 해결을 위한 지역개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함임.</p> <p>우리나라의 도심 개발로 인한 거주 환경의 다양한 변화 현상 제시하고 있는 사례, 그림 및 표 등은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목에서 발췌, 인용하고 있음.</p> <p>○ 자료에 대한 분석</p> <p>공간불평등 및 지역개발과 관련된 현상에 대한 분석과 해결 방안 제시 능력 평가를 위해 제시하고 있는 제시문 (가), (나), (다), (라) 모두 현행 고등학교 통합사회, 한국지리, 경제 교과목에서 발췌하여 인용하고 있음.</p> <p>따라서 이 문항은 수험생이 현행 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수행하였다면 별도의 사교육 없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p>
출제 의도 및 근거, 문항 해설, 채점 기준 및 항목에 대한 분석
<p>○ 출제 의도 및 근거의 적절성</p> <p>이 문항의 출제 의도는 공간 불평등의 다양한 현상을 현행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과 이론을 통한 분석력 및 이해력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또한 이를 바탕으로 그 배경과 원인을 분석하여 그 해결점을 지역 개발 방식과 연결할 수 있는 추론 능력을 평가하고자 함.</p> <p>이러한 능력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해당 교과목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역량과 일치함.</p> <p>따라서 이 문항은 수험생이 현행 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하였는지를 평가 하기 위한 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음.</p>

○ 문항 해설의 적절성

제시문 (가)는 슬럼화를 별도의 응용적 사고가 필요 없는 현상임을 적절하게 나타내고 있음.

제시문 (나)는 그림을 통하여 도시대비 농촌의 고령화 현상을 추론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제시문 (다)와 (라)에 대한 해설은 이 문항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준임을 설명하고 있음.

출제자의 문항 해설을 볼 때 수험자는 별도의 사교육 없이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수행하였다면 이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없음.

○ 채점 기준 및 항목의 적절성

이 문항에 대한 답을 제시함에 분석력, 이해력, 추론 및 논리력 그리고 구성력이 요구되는데, 이는 현행 교육과정의 해당 교과목의 성취기준에 기반을 두고 있음.

따라서 경기대학교의 논술우수자전형의 채점 기준 및 항목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해당 교과목에서 함양하고자 하는 역량을 측정하고자 하는 의도와 일치하고 있음.

결국, 문제해결을 위해 요구되는 역량 함양을 위해 수험생들은 특별한 선행학습의 도움 없이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수행했다면 큰 무리 없이 논술 문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3) 문항카드 ③ (논술우수자전형B-1[언어])에 대한 문항 분석

① 자문위원 A

문항 및 자료에 대한 분석
<p>○ 문항에 관한 분석</p> <p>[문항 1] (가)와 (나)에서 묘사하고 있는 현실을 대조하여 설명하고, ㉠에서 표현되고 있는 화자의 갈망이 (나)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서술하시오. (700 ± 50자)</p>

(가)와 (나)를 감상하면 무엇을 누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정리하게 된다. 우주인이 느끼는 것은 중력이 없는 공간에서 기댈 수도 없고 방향도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고 (나)에서는 현실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중력이 없는 세계, 먼지도 없는 세계를 갈망하는 삶의 모습을 감상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현실을 대조하게 되고 ㉠에서 갈망하는 모습이 (나)에서는 현실의 무게로 다가오는 대조적인 모습을 읽어내게 된다. 이런 점에서 문학의 소재가 유사하더라도 어떻게 형상화하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세계로 인식하게 만드는 묘미를 학생들은 경험하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자료에 대한 분석

김기택의 <우주인>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이며,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고등학교 문학에 수록된 작품으로 학생들이 한 번 이상은 읽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작품이다. 작품의 내용이나 감상에 큰 무리가 없는 수준으로 학생들은 무난하게 감상하고 해석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우주인과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 중력이란 개념을 공통점으로 찾지 못한 학생이 있더라도 답안을 작성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인물이 처한 상황에서 무엇을 갈망하는가만 생각해도 충분히 이러한 요소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출제 의도 및 근거, 문항 해설, 채점 기준 및 항목에 대한 분석

○ 출제 의도 및 근거의 적절성

자연현상, 물리현상인 중력을 문학 작품에서 어떻게 형상화했는가를 바탕으로 한 문제이다. 문학은 가공의 진실의 세계를 다루는 장르이다. 그런 점에서 현실적 요소와 상상의 세계가 항상 결합하기도 한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우주인’과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현실의 세계를 벗어난 세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현실 일부도 된다는 점이 학생들에게 새로운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제시문별로 성취기준을 밝혀 평가 내용과 연계하고 있다. 교과목에 따른 성취기준을 제시문에 모두 적용함으로써 별도의 사교육 영향을 받

지 않도록 하고 있다.

두 작품 모두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으로 무엇을 토대로 작품을 형상화했는가를 생각하면 두 작품의 현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문항 해설의 적절성

두 작품은 중력을 바탕으로 형상화하고 있는데 (가)는 중력이 없는 삶의 공허함에 초점을 두고 형상화하고 있지만, (나)는 삶의 무게(중력)에 이끌린 어려운 생활에서 벗어나(중력이 없는 세계) 삶을 꿈꾸는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런 점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출제 의도를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방향성을 충분히 안내하고 있다.

○ 채점 기준 및 항목의 적절성

채점항목을 보면 (가)와 (나)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분석적 능력이 있는가를 평가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에 대한 인식을 끌어내는가를 평가한다. 여기에서 제시문에서 말하는 문제 상황을 문학적으로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가, 인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인물의 성격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 등을 추리·상상하는 능력을 평가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중요도 순서대로 평가 요소에 반영되어 있어 학생의 역량을 출제 의도에 따라 평가하는데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다.

② 자문위원 B

문항 및 자료에 대한 분석

○ 문항에 관한 분석

‘(가)와 (나)에서 묘사하고 있는 현실을 대조하여 설명하라’는 문항은 개별 문항이 현실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양상의 차이점을 서술하라는 문항이고, ‘㉠에서 표현되고 있는 화자의 갈망이 (나)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서술하라’는 인물의 욕망과 욕망의 해소 방안을 구

체적으로 서술하라는 문항으로 고등학교 국어과 학습활동에서 빈번히 사용되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문항을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할 수 있어 교육과정의 범위를 준수한다고 하겠다.

○ 자료에 대한 분석

(가) 김기택의 ‘우주인’, (나)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모두 고등학교 국어과(국어, 문학) 교과서에 실린 작품이다. 두 작품은 모두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한다.’라는 국어과 성취기준을 구현한다. 두 작품은 모두 중력을 관련지어 현실을 인식한다. ‘우주인’에서 화자는 삶의 목표나 신념이나 확신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의 불안한 삶을 무중력의 세계를 부유하는 우주인의 삶에 비유하며 중력의 세계를 희망한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 1970년대의 난쟁이가 가족은 자본주의 경제 구조의 모순으로 벗어날 수 없으며 대물림 되는 가난한 삶을 ‘한 걸음도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절망적인 삶으로 인식하며 무중력의 달나라를 꿈꾼다.

출제 의도 및 근거, 문항 해설, 채점 기준 및 항목에 대한 분석

○ 출제 의도 및 근거의 적절성

‘문학을 통한 현실의 인식’은 문학 활동의 본질이다. 문학 작품을 읽으며 다양한 시대의 현실을 인식하고 부조리한 현실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경험은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을 키우는 국어과의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출제 의도이다.

○ 문항 해설의 적절성

‘우주인’에서 화자를 무중력의 세계를 부유하고 있는 우주인처럼 구체적인 목표나, 삶에 대한 신념이나 확신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현대인으로,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 난쟁이가 가족을 빈곤의 대물림, 고착된 계층 구조,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현실 세계의 부조리와 구조적인 모순에 의해 고통 받는 존재로 해설한다. 이러한 문항 해설에 사용되는 어휘와 내용의 수준이 무난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중심 내용을 이해

하고 자신의 글을 스스로 퇴고하는 데에 적절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교육과정의 범위를 준수한다고 하겠다.

○ 채점 기준 및 항목의 적절성

〈채점항목〉 ①은 제시문에서 반드시 파악해야 할 핵심 내용이고, ②~④는 논제에 명시적으로 드러난 항목이고, ⑤는 어문 규정과 답안의 분량이므로 채점항목으로서 객관성을 확보한다. 〈채점기준〉 A는 채점항목을 모두 충족한 것을 전제로 하며, B와 C는 채점항목을 모두 충족하되 그 완성도에 따라 차등을 두며, D와 E는 채점항목의 누락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었으므로 채점 기준의 명확성을 확보한다.

4) 문항카드 ④ (논술우수자전형B-2[사회])에 대한 문항 분석

① 자문위원 C

문항 및 자료에 대한 분석

○ 문항에 관한 분석

해당 문항은 사티라는 힌두 사회의 관습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전통과 인권 보장의 가치 문제에 대한 비판적 사고 능력을 묻는 문항으로, 고 1 공통 과목인 통합 사회의 핵심 주제였던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의 상대성 문제를 인류 보편적 가치나 인권 보장과 관련지어 비판적으로 성찰해 보고, 아울러 통합 사회 과목이나 세계사에서 공통적으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프랑스 인권 선언과 세계 인권 선언의 역사적 의의를 분석하여 전통의 재조명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사교육 도움이 없더라도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논술 전형에 대비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면서도 개인별 학습 역량과 고등 사고력을 발휘하도록 질문과 제시문을 복합적으로 체계화하여 구성하였음.

○ 자료에 대한 분석

문항에서 자료로 활용된 제시문은 고등학교 1학년생이 공통적으로 배우는 통합사회 과목의 교과서에서 문화 관련 단원에서 전통에 대해 서로 다른 가치를 지향하는 내용을 뽑아 제시문(가)와 제시문(나)로 제시하여 비판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세계사 교과서과 통합 사회 교과서의 프랑스 인권 선언과 세계 인권 선언의 등장 배경을 제시문(다)로 제시하면서 그 역사적 의의를 파악하여 제시문(가)의 ㉠에 제시된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가 있다는 신념’을 지지하도록 하여 인권 보장의 역사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학생 스스로 도출해내도록 자료를 유기적 관계로 묶어 제시하였음.

기본적으로 제시문(가)에서의 사티 관습은 고1 통합사회에서 학생들이 극단적인 문화 상대주의의 문제점을 학습하면서 인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경우로서 토의 수업 등에서 많이 다루어졌던 소재이지만 논리적 추론을 통해 제시문(나)의 전통의 가변성 개념과 관련지을 수 있는지를 묻고 있고, 다시 세계사적인 흐름 속에 인권 보장의 역사를 제시문(다)에 제시하여 보편적 권리의 확대 흐름으로 파악하도록 하여 제시문(가)의 ㉠을 지지하는 근거로 삼게 하는 점에서 사고의 연속적인 전이 능력을 파악하도록 자료를 배치했다고 할 수 있음.

출제 의도 및 근거, 문항 해설, 채점 기준 및 항목에 대한 분석

○ 출제 의도 및 근거의 적절성

문항의 출제 의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용에 근거해 있고 특히 고1 통합사회의 핵심 질문과 연관된 내용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며 질문의 의도를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음.

○ 문항 해설의 적절성

문항 해설의 경우 제시문(가)는 사티에 대한 해설임을, 제시문(나)는 전통이 현대적이고 재해석 가능한 것임을, 제시문(다)는 프랑스 혁명과

인권 선언과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세계 인권 선언을 제시했다는 점을 밝히고, 제시문(나)에 제시된 전통의 가변성을 통해 제시문(가)의 사티가 힌두 사회의 전통 가치로서 수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비판하는 한편, 제시문(다)의 프랑스 혁명과 세계 인권 선언의 사례가 인권 확대를 위한 노력이란 점에서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가 있다는 점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바, 제시문(가) 속에서 ㉠과 ㉡에 대한 설명이 조금만 더 자세히 제시되었다면 학생들이 전통 수호와 인권 확대라는 보편적 가치가 대비되는 글을 작성하기에 친절한 사후 안내가 되었을 것임.

○ 채점 기준 및 항목의 적절성

채점 기준과 항목에 있어서는, (나)의 ㉢ 관점에서 (가)의 ㉠을 비판하라는 질문에 대한 채점 기준이 2개, (다)의 역사적 사건들이 갖는 의미를 통해 (가)의 ㉡을 지지하라는 질문에 대한 채점 기준이 2개, 기타 어문 규정 등에 대한 채점 기준이 1개 등으로 제시되어 문항에서의 각 질문과 그에 대한 채점 기준이 고르게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수험생들이 답안 작성 결과에 대해 채점 결과까지 충분히 예상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다음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가이드 라인을 분명히 제시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사료됨.

② 자문위원 D

문항 및 자료에 대한 분석

○ 문항에 관한 분석

이 문항은 인권의 가치가 전통과 현대적 관점 사이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변화되어 왔는가를 살펴보면서 수험생들이 인권의 본질에 대하여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자 함.

이 과정에서 전통적 관습과 현대사에서의 수험생들의 인권에 대한 이해력, 비판력, 사고력 분석력을 추론력 등을 평가하고자 하였음.

○ 자료에 대한 분석

이를 위해 제시문 (가)는 전통 속에서의 인권의 유린의 모습을, 제시문 (나)는 전통의 가변성을, 제시문 (다)는 자유와 평등 등의 보편적 인권 보장과 인권상실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역사적 사건을 담아내고 있으며, 각각의 제시문들은 현행 고등학교의 세계사와 통합사회에서 인용, 발췌된 것들임.

따라서 수험생은 현행 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수행하였다면 별도의 사교육 없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항으로 보임.

출제 의도 및 근거, 문항 해설, 채점 기준 및 항목에 대한 분석

○ 출제 의도 및 근거의 적절성

이 문항은 수험생들의 인권의 본질에 대한 이해력, 전통적 관습 인권 이해에 대한 비판력, 이를 뒷받침해주는 현대적 사건에 대한 분석능력과 추론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음.

이 과정에서 수험생들은 현행 교과서에 다루고 있는 보편적 인권, 전통에 대한 개념 등을 파악함으로써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역량인 비판적 능력과 문제해결능력 등의 습득 여부를 알고자 하였음.

문제해결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제시문은 해당 교과와 성취 수준이 달성되었을 때의 역량을 반영하고 있음.

○ 문항 해설의 적절성

제시문 (가)는 힌두 사회의 전통에서의 인권 유린을, 제시문 (나)는 전통에 대한 재해석의 당위성을 제시문 (다)는 프랑스 혁명의 결과인 인권선언과 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보장을 위한 세계인권선언을 담아내고 있음.

이 제시문들의 연관성 속에서 전통적 관습으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수험생들의 인권에 대한 이해력, 한계와 예외에 대한 비판력 등을

평가할 수 있음.

문항의 해설들은 현행 교육과정의 해당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의거하여 제시되고 있음. 따라서 수험자는 별도의 사교육 없이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수행하였다면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사료됨.

○ 채점 기준 및 항목의 적절성

이 문항의 채점 기준은 제시문들 간의 맥락에서 수험생의 전통에 대한 이해력, 분석력, 논리력과 비판능력, 인권에 대한 이해력과 분력력 등의 소지 여부인데 이는 현행 교육과정의 해당 교과목의 성취기준에 기반을 두고 있음.

따라서 경기대학교의 논술고사 우수자 전형의 채점 기준 및 항목은 2015개정 교육과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고자 하는 학습자의 핵심역량을 측정하도록 구성되었음.

결국, 수험생들은 특별한 선행학습의 도움 없이 현행 학교교육과정을 충실히 수행하였다면 큰 무리 없이 이 논술 문항이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V. 대학 입학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

경기대학교는 대학별 고사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고교 교사 참여 강화 및 출제위원 교육 강화, 모의논술 시행 등 선행학습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1.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범위 준수 점검을 위한 고교 교사 참여 강화

논술고사 출제과정에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검토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21학년도부터 검토위원을 언어·사회로 구분하여 영역별 각 1명씩 검토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또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연구위원회 6명의 위원들 중 3명이 고등학교 교사로 50% 이상의 교사 비중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논술고사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 출제과정에서는 검토위원의 점검을 거치며, 출제 후에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연구위원회의 문항 분석을 통해 2차 점검 과정을 갖는다.

2. 출제위원 대상 사전교육 강화

대학별고사 출제위원들이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출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2015개정 교육과정을 비롯한 사전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고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3. 모의논술고사 시행 및 대학별고사 안내 활동 지속

경기대학교는 수험생에게 대학별고사의 이해와 준비를 돕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대학별고사에 대한 안내를 지속하고 있다.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논술고사 기출문제를 공개하고 그와 더불어 채점기준과 문항해설, 예시답안 등의 안내사항 등이 수록된 논술고사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또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 되었던 모의논술을 COVID-19 확산 방지 및 다양한 지역과 고교에서의 참여를 위하여 온라인으로 운영하였으며, 모의논술 피드백을 줌으로써 논술고사를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모의논술에서는 전년도 예비문제를 활용하여 실제 논술고사와 유사한 난이도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채점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본인의 실력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논술을 비롯한 대학별고사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4. 논술우수자전형 모집인원 점진적 축소

경기대학교는 문제풀이식 유형으로 인해 학생들의 준비가 용이하지 않고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크다고 인식되는 자연계열의 논술고사전형은 운영하지 않고, 인문계열 모집단위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학별고사 모집인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선행학습 유발 요인 완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입시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모집 인원	235	185	182	179	177	172	172	169	167

<부록 1>

문항 1

1. 일반정보

유 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교직 적 · 인성검사
	<input type="checkbox"/> 재외국민(면접)		<input type="checkbox"/> 학생부종합(면접)
전 형 명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A형 [언어]		
계열(과목) 및 문항번호	인문계 / 문항 A-1 [언어]		
출 제 범 위	교육과정 과목명	독서, 국어, 문학	
	핵심개념 및 용어	슬픔과 공감, 문학적 형상화, 감상적 읽기	
예상 소요 시간	60분		

2. 문항 및 제시문

[문항 1] **가**와 **나**의 시에서 **나**의 ‘슬픔’의 정서가 문학적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각각 서술해 보시오. (700 ± 50자)

가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 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혼자서 둥글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p>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p> <p>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p> <p style="text-align: right;">장석주, <대추 한 알>, 『고등학교 독서』</p>
나	<p>생사(生死)의 길은 예 있으면 두려워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지는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p> <p style="text-align: right;">월명사, <제망매가>, 『고등학교 국어』</p>
다	<p>높은 시름이 있고 높은 슬픔이 있는 혼은 복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실로 인생을 사랑하고 생명을 아끼는 마음이라면 어떻게 슬프고 시 름 차지 아니하겠습니까. 시인은 슬픈 사람입니다. 세상의 온갖 슬프 지 않은 것에 슬퍼할 줄 아는 혼입니다. “외로운 것을 즐기는” 마 음도, 세상 더러운 속중(俗衆)을 보고 “친구여!” 하고 부르는 것도, “태양의 등진 거리를 다 떨어진 병정 구두를 끌고 휘파람을 불며 지 나가는” 마음도 다 슬픈 정신입니다. 이렇게 진실로 슬픈 정신에게 야 속된 세상에 가득 찬 근심과 수고가 그 무엇이겠습니까. 시인은 진실로 슬프고 근심스럽고 괴로운 탓에 이 가운데서 즐거움이 그 마 음을 왕래하는 것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백석, <여수 박팔양 씨 시초 독후감>, 『고등학교 문학』</p>

3. 출제 의도

이 문항은 인간의 타자에 대한 ‘슬픔’의 정서가 다른 아닌 ‘시의 정신’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그러한 정서가 문학 작품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출제하였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교육과정	교육부 제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성취기준	1. 교과명: 국어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 기준 1	[12독서02-04] 글에서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글이 주는 즐거움과 깨달음을 수용하며 감상적으로 읽는다.	제시문[가]
	성취 기준 2	[12독서03-01]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제시문[가]
	과목명: 국어		관련
	성취 기준 1	[10국05-05]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제시문[나]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 기준 1	[12문학03-03]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갈래별 전개와 구형 양상을 탐구하고 감상한다	제시문[나]	

	성취 기준 2	[12문학02-04]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한다.	제시문[다]
	성취 기준 3	[12문학02-05] 작품을 읽고 다양한 시각에서 재구성하거나 주제적인 관점에서 창작한다.	제시문[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 여부
독서	한철우 외	비상	2020	84	제시문가	×
국어	신유식 외	미래엔	2020	253	제시문나	×
문학	이승원 외	좋은책 신사고	2020	78	제시문다	×

5. 문항 해설

제시문 (다)는 백석의 수필로, ‘슬픔’ 이 곧 근본적인 ‘시의 정신’임을 밝히는 글이다. 작자가 생각하는 시인은 ‘슬픈 영혼’이다. 보통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온갖 슬프지 않은 일들에 내 일처럼 슬퍼하고 기뻐할 줄 아는 존재이다. 작자에게 ‘슬픔’이란 타자에 대한 공감과 연민, 정서적 동일시를 의미하며, 이는 단순히 슬프다는 의미를 넘어 공감과 연민, 그리고 정서적 동화를 통한 타자와의 합일(合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제시문 (가)는 가을 대추를 보고 느낀 감정을 ‘의인적 수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시인은 만추의 가을 하늘 속에 붉고 둥글게 익은 대추를 보며 시련을 견디며 굼어 온 ‘존재’의 모습을 읽어내고 있다. 대추가 성장하며 겪었을 고난과 역경에 대한 공감과 연민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대추 속에 투영하면서, 자신과 대추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시인은 대추에게 사람을 대하듯 다정하게 말을 건넨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라고...

제시문 (나)는 누이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는 마음을 ‘비유적 수법’으로 표

현하고 있다. 작자는 육친과의 사별의 아픔을 자연물인 나뭇가지와 잎, 바람에 대한 비유로 표현함으로써 이를 존재 보편의 아픔, 즉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의 아픔에 대한 공감과 연민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생명의 유한성이라는 존재 보편의 숙명에 대한 절절한 공감과 연민을 미타찰에서 만남이라는 종교적 초월과 합일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6. 채점 기준 및 항목

● 채점 항목

- ① 제시문 ■에서 ‘슬픔’의 정서가 타자와의 ‘공감, 연민, 동일시’라는 것을 포착하고 있는가? [이해력, 분석력]
- ② 제시문 ■에서 ‘대추’의 시련과 역경에 대한 공감과 정서적 동화를 잘 포착하고 있는가? [이해력, 분석력]
- ③ 제시문 ■에서 ‘누이의 죽음’에 대한 연민과 공감, 정신적 승화에의 의지를 읽어내고 있는가? [이해력, 분석력]
- ④ 제시문 ■과 ■에 나타난 문학적 표현의 방식과 그 특징을 잘 분석하고 있는가? [이해력, 분석력, 추론력]
- ⑤ 어문규정, 원고 분량 등을 지키고 있는가? [구성력, 표현력]

● 채점 기준

등급	요건
A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B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그 중 ① 또는 ③에 대한 기술이 다소 미흡하다.
C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그 중 ② 또는 ④에 대한 기술이 다소 미흡하다.
D	위의 요건 가운데 ①, ②, ③, ④, ⑤ 중 하나가 기술되지 않거나, 그 중 둘 이상이 매우 불충분하다.
E	위의 요건 가운데 하나 정도만 언급되어 있거나, 전반적으로 이해가 부족하다.

7. 예시 답안

(다)는 시인이 갖고 있는 슬픔의 정서가 다른 이들과 남다른 시선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기쁨, 공감의 정서도 주된 감정인 슬픔을 통해 문학 작품 속에 완전히 담아내어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와 (나)의 시가 어떤 시적 표현과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지 말할 수 있다.

먼저 (가)의 화자는 타인들이 보기에 하찮을지 모르는 대추열매 한 알 속에서 자연의 과정을 읽어낸다. 그 예리한 시선은 (다)에 따라 생명을 아끼는 마음이 슬픔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시인은 슬프지 않은 것에도 슬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자연에 대한 놀라움과 깨달음이 애정의 감정인 슬픔으로 승화되어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 애정은 작은 대추 한 알이 태풍, 벼락, 번개를 맞는 고통을 통해 영글었다는 자연 가치에 따른 깨달음의 정서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나)의 시는 슬픔의 정서가 화자가 그리는 임과의 이별의 상황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여기서 화자는 이별의 정서를 단지 슬픔으로만 표현하고 있지 않는다. 헤어짐과 기다림의 대상에 대하여 복합적 감정을 왕래하고 있다. 그 감정은 미타찰 세계에서 다시 만나리라는 희망과 기대를 통해 드러난다. 이 과정에서 슬픔과 재회에 대한 기쁨의 상상을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내고 있기에 화자는 주된 슬픔의 정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 감정을 느끼고 시를 통해 승화시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항 2

1. 일반정보

유 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교직 적 · 인성검사
	<input type="checkbox"/> 재외국민(면접)	<input type="checkbox"/> 학생부종합(면접)
전 형 명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A형 [사회]	
계열(과목) 및 문항번호	인문계, 예체능계 / 문항 A-2 [사회]	
출 제 범 위	교육과정 과목명	통합사회, 경제, 한국지리
	핵심개념 및 용어	도시내 및 도시로 이동, 슈바베지수, 성장거점개발
예상 소요 시간	60분	

2. 문항 및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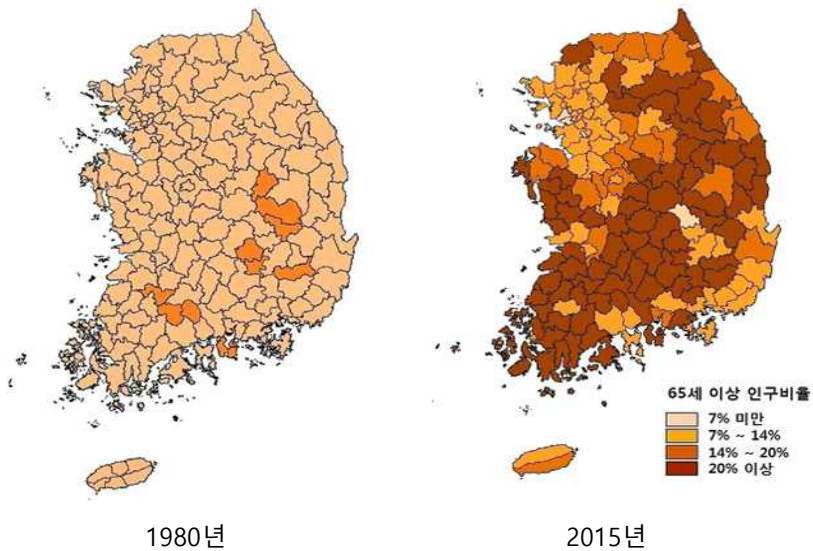
[문항 2] **가**와 **나**에 나타난 이동 현상의 차이를 **다**를 참고하여 해석해 보고 **나**의 현상을 **다**와 연관지어 설명하시오. (700 ± 50자)

가	<p>대전시의 기존 중심지였던 대전역 주변은 1990년대 중반부터 주변 신도시 개발로 여러 공공 기관과 상점들이 빠져나가면서 슬럼화가 가속화되었고, 그 결과 건물이 노후화되면서 거주 환경이 열악해졌다. 이에 따라 도심의 인력 시장이나 인력 소개소, 전통 시장 등과 가까운 대전역 주변으로 도시에서 보증금 없이 일세나 월세를 내는 주거 빈곤층들이 이동하여 몰려들었다. 이 쪽방촌은 취사 시설이나 화장실 등 부대시설이 없는 3.3㎡ 내외의 쪽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겨우 두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비좁은 골목길 끝에 공동 화장실이 있다. 쪽방 거주민들은 겨울의 혹독한 추위도 견디기 어렵지만, 오히려 여름의 더위를 나는 것이 더 힘든 일이라고 한다. 창문이 없는 쪽방도 많</p>
----------	--

은 데다가 밤에는 치안 걱정에도 문도 마음껏 열 수 없어 불별더위를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나 다음 자료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으로 인한 지역별 노년층 인구 분포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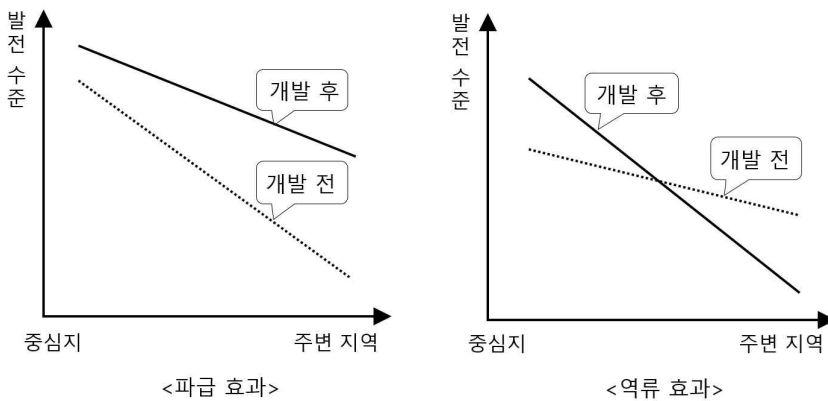
『고등학교 한국지리』

다 가계의 총지출 중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한 값을 ‘슈바베 지수(Schwabe Index)’라고 한다. 이 지수는 1868년 독일 통계학자 슈바베가 처음으로 소개한 개념으로, 주거 비용을 가계 소비지출로 나눈 값에다 100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때 주거비에는 집세(전·월세 비용)뿐만 아니라 금융비용(주택 관련 대출 상환금, 세금, 보험료) 및 관리비용(주거 관련 서비스비, 연료비) 등도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발전된 지역일수록 주거비가 높는데, 슈바베 지수가 높을수록 주거비의 비중이 커진다는 의미이며,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그 부담은 더욱 크다.

『고등학교 경제』

라

지역 개발은 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지역 개발은 하향식 개발 방식과 상향식 개발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은 주로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개발로 이루어지며,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여 파급 효과를 노리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반면, 역류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개발 도상국들은 정부 주도로 하향식 지역 개발 전략을 채택한다.



『고등학교 한국지리』

3. 출제 의도

이 문항은 우리나라 공간 불평등 및 지역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현상에 대해 현행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개념이나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추론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관련된 그림이나 표 해석을 통해 도시 내부 및 농촌과 도시 간의 공간 불평등 현상을 주거비와 관련된 개념을 활용하여 비교하고, 그 배경을 우리나라 지역 개발 방식과 연결하여 분석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교육과정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성취기준	1. 교과명: 사회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 기준 1	[10통사06-03]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의 사례를 조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천 방안을 탐색한다.	제시문[가]
	과목명: 한국지리		관련
	성취 기준 1	[12한지06-02]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문제와 이에 따른 공간적 변화를 파악하고, 이의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제시문[나]
	성취 기준 2	[12한지04-03] 주요 대도시를 사례로 도시 계획과 재개발 과정이 도시 경관과 주민 생활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제시문[라]
	과목명: 경제		관련
	성취 기준 1	[12경제05-02] 수입과 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인식하고, 개인 자산과 부채의 합리적인 관리 방법을 파악한다.	제시문[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 여부
통합사회	구정화외	천재교육	2020	195	제시문가	×
한국지리	유성종외	비상	2020	163	제시문나	×
경제	김진영외	미래엔	2020	180	제시문다	×
한국지리	유성종외	비상	2020	113	제시문라	×

5. 문항 해설

제시문 (가)는 도시 내에 거주환경이 열악한 쪽방촌이 형성되어 이곳으로 주거비 부담이 어려운 빈곤층들이 이동해 거주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제시문 (나)는 도시 대비 농촌에서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 비중이 높아진 현상을 나타내며, 이는 젊은 층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많이 이동한 결과임을 추론할 수 있다.

제시문 (다)는 주거비 비중을 다루는 슈바베 지수에 대한 설명이다. 제시문은 발전된 지역일수록 주거비가 높는데, 주거비 비중이 높을수록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크다고 설명한다.

제시문 (라)는 지역 개발 방법 중 하향식 개발 방식인 성장 거점 개발 방식에 대한 설명과 그로 인한 긍정적 효과인 파급효과와 부정적 효과인 역류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제시문 (다)를 참고하여 제시문 (가)와 (나)의 이동 현상의 차이를 살펴보면, 제시문 (가)에서 주거 빈곤층이 쪽방촌으로 이동한 현상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도시 내에서 주거비가 낮은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제시문 (나)에서 젊은 층들이 도시로 이동한 현상은 다양한 기회와 자원을 위해 주거비가 높은 곳으로 이동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제시문 (라)와 연관지어 제시문 (나)의 현상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지역 개발 과정에서 성장 거점 개발이 이루어졌으나, 주요 도시 위주로 발전이 집중되는 역류효과가 나타나 지역 간 격차가 커진 결과라 설명할 수 있다.

6. 채점 기준 및 항목

● 채점 항목

- ① 제시문 (가)와 (나)에 나타난 도시 내부 및 도시로의 이동 현상의 차이점을 제시문 (다)에 나타난 주거비 개념을 참고하여 해석할 수 있는가? [분석력, 이해력, 추론력, 논리력]
- ② 제시문 (나)의 젊은 층의 도시로의 인구이동을 시사하는 그림과 제시문 (라)의 파급효과 및 역류효과 그래프를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는가? [이해력, 분석력, 추론력]
- ③ 제시문 (라)의 지역 개발 방식의 효과를 이해하고, 제시문 (나)의 현상의 배경을 역류효과와 연결지어 설명할 수 있는가? [추론력, 이해력, 논리력]
- ④ 어문규정, 원고 분량 등을 지키고 있는가? [구성력, 표현력]

● 채점 기준

등급	요건
A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B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그 중 ①, ②, ③ 가운데 하나가 다소 미흡하다.
C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그 중 ①, ②, ③ 가운데 둘이 다소 미흡하다.
D	위의 요건 가운데 ①, ②, ③ 중 하나가 기술되지 않거나, 그 중 둘이 매우 불충분하다.
E	위의 요건 가운데 둘 이상이 매우 불충분하거나, 전반적으로 이해가 부족하다.

7. 예시 답안

(다)에서는 가계의 총지출 중에서 집세, 금융비용, 관리비용을 합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값인 ‘슈바베 지수’에 관해 제시한다. 슈바베 지수가 높을수록 주거비의 비중은 커지며, 발전된 지역일수록 슈바베 지수가 높게 나타난다. 높은 슈바베 지수는 저소득층에서 특히 부담이 크다. 이와 같은 (다)의 관점에서 (가)와 (나)에 나타난 이동현상은 모두 주거비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가)의 대전역 주변은 낮은 주거비 때문에 빈곤층이 이동한 현상인 반면에 (나)의 이촌향도 현상은 높은 주거비를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일자리와 인프라를 찾기 위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도시의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노년층이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저렴한 농촌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높은 슈바베 지수에도 (나)와 같이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제시문 (라)에 근거할 때 성장 거점 개발의 부작용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라)에서는 지역 개발을 하향식 개발 방식과 상향식 개발 방식으로 나눈다. 주로 정부 주도 하에서 이루어지는 하향식 개발 방식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중심지와 주변 지역의 발전 수준의 차이가 더 커지는 역류 효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나)의 현상이 역류 효과의 예라고 볼 수 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 개발되는 특성 때문에 인구가 밀집된 도시가 계속해서 개발되고, 주변 지역인 농촌과의 인구와 발전 수준의 차이가 벌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

문항 3

1. 일반정보

유 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교직 적 · 인성검사
	<input type="checkbox"/> 재외국민(면접)	<input type="checkbox"/> 학생부종합(면접)
전 형 명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B형 [언어]	
계열(과목) 및 문항번호	인문계, 예체능계 / 문항 B-1 [언어]	
출 제 범 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문학
	핵심개념 및 용어	문학과 현실, 문학적 상상력
예상 소요 시간	60분	

2. 문항 및 자료

[문항 1] **가**와 **나**에서 묘사하고 있는 현실을 대조하여 설명하고, ㉠에서 표현되고 있는 화자의 갈망이 **나**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서술하시오. (700 ± 50자)

가	<p>허공 속에 발이 푹푹 빠진다 허공에서 허우적 발을 빼며 걸지만 얼마나 힘 드는 일인가 기댈 무게가 없다는 것은 걸어온 만큼의 거리가 없다는 것은</p> <p>그동안 나는 여러 번 넘어졌는지 모른다 지금은 쓰러져 있는지도 모른다 끊임없이 제자리만 맴돌고 있거나 인력(引力)에 끌려 어느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p>
----------	--

발자국 발자국이 보고 싶다
 뒤통치에서 통겨 오르는
 발걸음의 힘찬 울림을 듣고 싶다
 내가 걸어온
 길고 뻘뻘한 길이 보고 싶다

김기택, <우주인>, 『고등학교 국어』

나 【앞의 줄거리】 난쟁이 가족이 사는 낙원구 행복동에 철거 계고장이 배달되자 가난한 그들은 입주권을 팔고 이사해야 할 처지에 내몰린다. 인쇄 공장에서 일하던 나는 우연한 기회에 노비 문서를 조판하게 되고, 노비 매매 문서는 사라졌지만 가난은 세대를 통해 되물림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어머니는 인쇄소 제본 공장에 나가 접지 일을 했다. 고무 골무를 끼고 인쇄물을 접었다. 나는 겁이 났다. 나는 인쇄소 공무부 조역으로 출발했다. 땀을 흘리지 않고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명희는 나를 만나 주지 않았다. 아주 찢찢했다. 영호와 명희도 몇 달 간격을 두고 학교를 그만두었다. 마음이 차라리 편해졌다. 우리를 해치는 사람은 없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보호를 받고 있었다. 남아프리카의 어느 원주민들이 일정한 보호 구역 안에서 보호를 받듯이 우리도 이질 집단으로서 보호를 받았다. 나는 우리가 이 구역 안에서 한 걸음도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조역, 공목, 약물, 해판의 과정을 거쳐 정판에서 일했다. 영호는 인쇄에서 일했다. 나는 우리가 한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싫었다. 영호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영호는 먼저 철공소 조수로 들어가 잔심부름을 했다. 가구 공장에서도 일했다. 그 공장에 가 일하는 영호를 보았다. 뽕얀 톱밥 먼지와 소음 속에서 서 있는 작은 영호를 보고 나는 그만두라고 했다. 인쇄 공장의 소음도 무서운 것이었으나 그곳에는 톱밥 먼지가 없었다.

우리는 죽어라 하고 일했다. 우리의 팔목은 공장 안에서 굽어갔다. 명희는 그때 큰길가 슈퍼마켓 한쪽에 자리잡은 빵집에서 일했다. 우리가 고맙게 생각한 것은 환경이 깨끗하다는 것 하나뿐이었다. 명희는 하늘색 빵집 제복을 입고 일했다. 영호와 나는 유리창

밖에서 영희가 일하는 것을 보았다. 영희는 예뻐다. 사람들은 영희가 난쟁이의 딸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공부를 하지 않고는 우리 구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세상은 공부를 한 자와 못 한 자로 너무나 엄격하게 나누어져 있었다. 끔찍할 정도로 미개한 사회였다. 우리가 학교 안에서 배운 것과는 정반대로 움직였다.

(중략)

줄 끊어진 기타를 영희는 쳤다. 나는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일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을 아버지는 개천 건너 주택가에 사는 젊은이에게서 빌렸다. 그의 이름은 지섭이었다. 지섭은 그 집 가정교사였다. 아버지와 그는 서로 통하는 데가 있었다. 지섭이 하는 말을 나는 들었었다. 그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왜?” 아버지가 물었다. 지섭은 말했다.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욕망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남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만 사는 땅은 죽은 땅입니다.” / “하긴!” / “아저씨는 평생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 “일을 안 하다니? 일을 했지. 열심히 했어. 우리 식구 모두가 열심히 일했네.” / “그럼 무슨 나쁜 짓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법을 어긴 적 없으세요?” / “없어.” / “그렇다면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어요.” / “기도도 올렸지.” / “그런데, 이게 뭐니까? 뭐가 잘못된 게 분명하죠?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이제 이 죽은 땅을 떠나야 됩니다.” / “떠나다니? 어디로?” / “달나라로!”

“애들아!” 어머니의 불안한 음성이 높아졌다. 나는 책장을 덮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영호와 영희는 엉뚱한 곳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나는 방죽가로 나가 곧장 하늘을 쳐다보았다.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그 맨 꼭대기에 아버지가 서 있었다. 바로 한 걸음 정도 앞에 달이 걸려 있었다. 아버지는 피뢰침을 잡고 발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 자세로 아버지는 종이비행기를 날렸다.

(중략)

지섭의 책에 아버지의 손때가 까맣게 묻었다. 아버지와 지섭은 우리에게 대기권 밖을 날아다니는 사람들로 보였다. 두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달을 왕복했다.

“살기가 너무 힘들다.” 아버지가 말했었다. “그래서 달에 가 천문대 일을 보기로 했다. 내가 할 일은 망원 렌즈를 지키는 일야. 달

에는 먼지가 없기 때문에 렌즈 소재 같은 것도 할 필요가 없지. 그 래도 렌즈를 지켜야 할 사람은 필요하다.”

“아버지, 도대체 그런 일이 가능할 것 같아요?” 내가 말했다.

“넌 이때까지 뭘 배웠니?” 아버지가 말했다.

“뉴턴이 그 중요한 법칙을 발표하고 삼 세기가 지났어. 너도 그 걸 배웠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어. 그런데 우주에 관한 기본 법 칩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는구나.”

“그런데 누가 아버지를 달에 모시고 가겠대요?”

“지섬이 미국 휴스턴에 있는 존슨 우주 센터에 편지를 냈다. 그 곳 관리인 로스씨가 답장을 보내올 거야. 후년에 우주 계획 전문가 들과 함께 달에 가게 될 거다.”

“그 책을 돌려주세요.” 내가 말했다. “그리고, 그 사람 말을 믿지 마세요. 그는 미쳤어요.”

“이 책의 사진을 봐라. 이 사람은 프란시스 베이컨이고, 이 사 람 은 로버트 고다드다. 당시 사람들이 미치광이로 지목했던 인물들이 야. 이 미친 사람들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아니?”

“몰라요.”

“넌 학교에서 죽은 교육을 받았어.”

조세희,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고등학교 문학』

3. 출제 의도

이 문항은 문학이 어떻게 현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해, 학생들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데 출제의 의도가 있다. 제시된 두 편의 문학 지문은 ‘중력’ 이라고 하는 동일한 물리학적 현상을 매개로 서로 다른 문학적 상상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현실의 문제를 무중력 상태에서의 우주인의 모습을 통해 묘사하거나, 반대로 중력의 세계에서 벗어나 또 다른 세계를 꿈꾸는 인물의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겉으로 드러난 문학적 표현들 속에서 작품의 미적 원리를 찾아내 비교하는 한편, 그것이 비유하고 있는 현실 세계의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교육과정	교육부 제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성취기준	1. 교과명: 국어		
	과목명: 국어		관련
	성취 기준 1	[10국05-02] 갈래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제시문[가]
	성취 기준 2	[10국05-04]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한다.	제시문[가]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 기준 1	[12문학02-02] 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	제시문[나]
	성취 기준 2	[12문학03-04]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한다.	제시문[나]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 여부
국어	고형진 외	동아출판	2020	225	제시문[가]	×
문학	최원식 외	창비	2020	219-225	제시문[나]	×

5. 문항 해설

제시문 (가)는 김기택의 <우주인>이라는 시로 『고등학교 국어』에 수록되어 있다. 이 시에서 시적 화자는 무중력의 세계를 부유하고 있는 우주인처럼 비유된다. ‘허공’에서 ‘기댈 무게’ 없이, ‘걸어온 만큼의 거리’도 알 수 없는 우주인의 모습은 실제로는 지향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나, 삶에 대한 신념이나 확신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떠오르게 만든다.

한편, 제시문 (나)는 조세희의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일부를 발췌해 실었다. 이 소설에서 난장이 가족들은 현실 세계의 부조리와 구조적인 모순에 의해 고통받고 있다. 재개발 난민 가족의 비극적인 서사를 통해 나타나는 빈곤의 대물림, 고착된 계층 구조,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는 “남아프리카 보호구역 속의 원주민”처럼 “구역 안에서 한 걸음도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현실에 대한 인식으로 귀결되고, 그것은 난장이 가족의 비참한 삶으로 형상화된다.

흥미로운 점은, (가)와 (나)가 인식하고 있는 이 세계와 인간의 문제가 유사하지만 비교되는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형상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력’에 관한 문학적 상상력은 (가)와 (나)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데 중요하게 사용된다. (가)의 시적 화자가 마치 우주인처럼 “기댈 무게”가 없는 ‘가벼운’ 세계 속에서 허무한 삶을 살거나,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을 “인력에 끌려” 타성적으로 살아갈 뿐이라면, (나)에서 난장이 가족은 ‘무거운’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존재들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주어진 제시문들에서 부조리한 현실로부터 벗어나 또 다른 세계를 꿈꾸는 화자나 인물들의 욕망이 서로 비교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중력의 허공 속에서 무의미한 삶을 반복하는 (가)의 시적 화자는 ‘기댈 무게’가 있는 중력의 공간을 꿈꾼다. “끊임없이 제자리만 맴돌고 있거나 / 인력에 끌려 어느 주위를 공전”하는 것이 아니라, “발자국이 보이고”, “발걸음의 힘찬 울림”이 들려오는 세계를 꿈꾸는 시적 화자의 욕망은 자신의 삶을 확인하고 바라볼 수 있는 중력의 땅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나)의 소설에서 아버지의 경우, 자신이 간혀 있는 부조리한 세계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공

통적이지만, 오히려 중력으로부터 벗어나 “달나라로/ 떠나” “대기권 밖을 날아다니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길 원한다는 점에서 (가)의 상상력과 비교된다. 높은 굴뚝에 올라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중력이 지배하지 않는 달나라 천문대에서 일하기를 꿈꾸는 인물의 소망은, 비록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치광이의 행동처럼 보일지라도, 자신의 세계로부터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고통받는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셈이다.

6. 채점 기준 및 항목

● 채점 항목

- ① 제시문 (가)와 (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여 설명하고 있는가? [이해력, 분석력]
- ② 제시문 (가)와 (나)에서 표현되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는가? [이해력, 논리력, 분석력]
- ③ 제시문 (가)와 (나)에서 지시하고 있는 문제 상황이 어떠한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가? [이해력, 추론력, 창의력]
- ④ 제시문 (가)와 (나)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문학적 방식을 이해하고, 그것이 인물들의 어떠한 욕망을 상징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가? [추론력, 창의력, 논리력]
- ⑤ 어문규정, 원고 분량 등을 지키고,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 [구성력, 표현력]

● 채점 기준

등급	요건
A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B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그 중 ① 또는 ③에 대한 기술이 다소 미흡하다.
C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그 중 ② 또는 ④에 대한 기술이 다소 미흡하다.
D	위의 요건 가운데 ①, ②, ③, ④, ⑤ 중 하나가 기술되지 않거나, 그 중 둘 이상이 매우 불충분하다.
E	위의 요건 가운데 하나 정도만 언급되어 있거나, 전반적으로 이해가 부족하다.

7. 예시 답안

(가)에서는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현실이라고 말한다. 허우적거리고 허공 속에 발을 빼며 걷지만 그렇게 걸어온 만큼 따라주지 않는 거리와 여러 번 시도하여도 제자리를 맴도는 공전은 전진하려 노력하지만 성장의 실패가 반복되는 허무한 현실을 보여준다. (나)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고 희망조차 없는 무모한 현실을 묘사하고 있다. 사회에서 소외된 난쟁이가 가족은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지만 이 가난이라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이러한 현실을 죽은 땅, 미개한 사회라 표현하며 노력해도 그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을 고발하며 (가)는 거리, 공전으로 (나)는 죽은 땅, 미개한 사회로 현실을 비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의 ㉠에서는 자신의 노력이 현실을 극복하여 진전하고픈 갈망을 보여준다. (나)에서는 이러한 갈망을 이 곳을 떠나 달에서 일할 하겠다는 아버지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비록 달에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하더라도 희망없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생각은 ㉠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현실에 대한 갈망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시도조차 하지 않는 학교를 죽은 교육이라 표현하며 이 무모한 현실에 대한 노력이 빛을 발하기를 희망하는 화자의 갈망이 드러나 있다.

문항 4

1. 일반정보

유 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교직 적 · 인성검사
	<input type="checkbox"/> 재외국민(면접)		<input type="checkbox"/> 학생부종합(면접)
전 형 명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B형 [사회]		
계열(과목) 및 문항번호	인문계, 예체능계 / 문항 B-2 [사회]		
출 제 범 위	교육과정 과목명	통합사회, 세계사	
	핵심개념 및 용어	사티, 전통, 인권, 인권선언, 세계인권선언	
예상 소요 시간	60분		

2. 문항 및 자료

[문항 2] **㉠**의 ㉡의 관점에서 **㉢**의 ㉣을 비판하고, **㉤**의 역사적 사건들이 갖는 의미를 통해 **㉥**의 ㉦을 지지해 보시오. (700 ± 50자)

㉢ 사티(sati, suttee)는 남편이 죽고 나서 화장할 때 아내를 산 채로 함께 화장하는 힌두교의 옛 풍습이다. 가장 오래된 사례는 기원후 510년에 행해진 것으로 추정되며, 1829년에 금지령이 내려지면서 점점 줄어들었다. 그런데 1987년에도 18세의 한 여성이 사티에 희생당한 사건이 있었다. 일부 힌두교도들이 사티를 지지하는 이유는, 그것이 ㉣힌두 사회의 전통 가치를 수호하는 방법이라 믿기 때문이다. 이들은 힌두교의 전통을 위해서, 사티처럼 여성이 희생하는 미풍양속은 지켜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라면 자살이나 테러, 전쟁까지도 감행할 수 있다고 여긴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누구도 빼앗거나 무시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가 있다는 신념마저 힌두교의 전통을 위해서라면 중요하지 않다고 믿는 것이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나

㉔전통은 전통적이지 않다. 지극히 현대적이다. 역사로서의 전통의 의미와 관련하여 영국의 문화 이론가인 윌리엄스(Williams, R.)는 ‘선별된 전통(selective tradition)’이라는 개념을, 또한 영국의 역사학자인 홉스봄(Hobsbawm, E.)은 ‘전통의 발명(invention of tradition)’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다

(1) 1789년 프랑스의 루이 16세는 계속된 전쟁과 왕실의 사치로 발생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부회를 소집하였다. 여기서 제3 신분인 평민은 신분별 표결이 아닌 머릿수 표결과 자신들의 대표 수증가를 요구하였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제3 신분은 독자적으로 국민 의회를 구성하고, ‘테니스 코트의 서약’을 통해 단결을 공고히 하였다. 한편, 왕실이 국민의회를 탄압할 조짐이 보이자, 파리 시민들은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였다. 혁명의 불길은 점차 전국으로 확산하여 갔다. 국민 의회는 각종 개혁 조치를 통해 민심을 달래는 한편, ‘인권선언’을 발표하여 혁명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

『고등학교 세계사』

(2) 인류는 두 차례 세계 대전을 겪으며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등 인간의 존엄성이 위협받는 상황을 경험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은 희생자가 약 5,5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역사상 가장 피해가 큰 전쟁이었다. 특히 인종 대학살, 폭격기에 의한 무차별 공습, 여성 인권 유린 등이 나타나면서 민간인 희생자도 많았다. 이후 인류의 인권 보장을 위해 1948년 국제 연합(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세계 인권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문서에는 인간의 자유, 평등에 관한 기본적 권리 외에도 사회적·문화적 권리 등이 명시되어 있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3. 출제 의도

이 문항은 전통이라는 이유로 인권을 유린하는 관습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를 통해 ‘인권’의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에 도달하도록 의도되었다. 따라서 학생들은, 전통은 불변의 것이 아니라 재해석이 가능한 개념이라는 관점을 통해 특정한 사회의 풍습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이러한 사유를 바탕으로 인간의 권리란 끊임없는 노력과 투쟁의 결과 속에서 획득되어 온 것임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교육과정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성취기준	1. 교과명: 사회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 기준 1	[10통사07-03] 문화적 차이에 대한 상대주의적 태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보편 윤리의 차원에서 자문화와 타문화를 성찰한다.	제시문[가]
	성취 기준 2	[10통사07-02] 문화 변동의 다양한 양상을 이해하고, 현대사회에서 전통문화가 갖는 의의를 파악한다.	제시문[나]
	성취 기준 3	[10통사04-01] 근대 시민 혁명 등을 통해 확립되어 온 인권의 의미와 변화 양상을 이해하고, 현대 사회에서 주거, 안전, 환경 등 다양한 영역으로 인권이 확장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한다.	제시문[다]
	과목명: 세계사		관련
	성취 기준 1	[12세사04-04] 시민 혁명과 국민 국가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고, 산업 혁명의 세계사적 의미를 해석한다.	제시문[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 여부
통합사회	구정화 외	천재교육	2020	229	제시문가	×
통합사회	구정화 외	천재교육	2020	222	제시문나	×
세계사	김덕수 외	천재교육	2020	151	제시문다	×
통합사회	구정화 외	천재교육	2020	111	제시문다	○

5. 문항 해설

제시문 (가)는 힌두 사회의 전통이라는 이유로 행해지고 있는 ‘사티’ (남편이 죽고 나서 화장할 때 아내를 산 채로 함께 화장하는 힌두교의 옛 풍습)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윌리엄스의 ‘선별된 전통’과 홉스봄의 ‘전통의 발명’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전통은 현대적이며 재해석 가능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 (다)는 프랑스 혁명과 ‘인권선언’,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인류의 인권보장을 위해 채택된 ‘세계 인권 선언’을 제시하였다.

제시문 (나)에서 전통은 인간에 의해 선별되고, 그러므로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는 가변적인 것으로 재정의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제시문(가)에 제시된 힌두사회에서 전통 가치를 수호하는 방법이라고 남자들이 믿고 있는 ‘사티’라는 관습은, 실제로는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위해 전통으로 인정받고 있는 일시적으로 “선별된 전통”이자 “발명”된 문화적 현상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풍습을 지킴으로써 전통의 가치를 수호할 수 있다는 생각은 보편적인 윤리를 위반한, 무비판적이고 맹목적인 추종일 뿐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

더구나, 이러한 관습이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권리를 파괴하고 있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된다. 인권은 인종, 성별, 사회적 신분 등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이자 누구도 빼앗거나 무시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이다. 보편적이며 불가침의 권리인 인권은 인류가 그것을 보

장받기 위해 수많은 희생을 통해 힘겹게 얻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 제시문 (다)에서 제시된 ‘프랑스 혁명’이나 ‘세계 인권 선언’의 사례들은 것처럼 인권의 확대와 수호를 위해 노력해온 바로 그와 같은 역사들이라 할 수 있다.

6. 채점 기준 및 항목

● 채점 항목

- ① 제시문 (나)의 ㉔에서 전통은 재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는가? [이해력, 논리력, 분석력]
- ② 제시문 (나)의 ㉔을 통해 (가)의 ㉑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는가? [이해력, 비판력, 분석력, 추론력]
- ③ 제시문 (다)의 역사적 사건들이 ‘인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의가 있는지를 이해하여 설명하고 있는가? [이해력, 분석력]
- ④ 제시문 (다)를 바탕으로 (가)의 ㉑을 논리적으로 지지하고 있는가? [이해력, 논리력, 분석력, 추론력]
- ⑤ 어문규정, 원고 분량 등을 지키고 있는가? [구성력, 표현력]

● 채점 기준

등급	요건
A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B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그 중 ① 또는 ③에 대한 기술이 다소 미흡하다.
C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그 중 ② 또는 ④에 대한 기술이 다소 미흡하다.
D	위의 요건 가운데 ①, ②, ③, ④, ⑤ 중 하나가 기술되지 않거나, 그 중 둘 이상이 매우 불충분하다.
E	위의 요건 가운데 하나 정도만 언급되어 있거나, 전반적으로 이해가 부족하다.

7. 예시 답안

제시문 (나)의 ㉔의 관점에서 볼 때, 맹목적인 종교적, 사회적 전통 수호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시대가 바뀌기 때문이다. 즉, 전통이 행해지는 시대적 배경이 계속해서 변화하므로 오래된 관습과 전통 역시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함께 바뀌고 변형된다. 더욱이 시대에 맞지 않는 전통은 현대인들로 하여금 거부감을 들게 하며, 결국 퇴행적 문화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가)에서 설명하는 ‘사티’와 같이 인권을 유린하는 전통은 시대 퇴행적 전통이다.

또한,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존엄성을 훼손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시문 (다)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이 존엄할 수 있는 권리, 즉 ‘인권’ 역시 시대 착오적 관습과 문화들을 쇄신하며 얻어낸 값진 결과물이다. 평민들의 인권을 위한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이 그러했고, 학살, 폭격 등 세계 대전으로 짓밟힌 인권을 회복하고 보호하기 위한 ‘세계 인권 선언’ 또한 그러했다. 두 역사적 사건들이 그랬듯이, 보편적인 가치는 시대 착오적, 시대 퇴행적인 오래된 관습과 전통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지켜질 수 있으며 어떤 문화나 전통도 인간의 존엄성을 비롯한 보편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전통과 관습은 인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시대에 발맞춰 진화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고 인간을 해하는 전통은 결국 시대 착오적 악습일 뿐이다. 따라서, 전통은 인간의 존엄성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보존되고 수호되어야 한다.

문항 5

1. 일반정보

유 형	<input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교직 적 · 인성검사
	<input type="checkbox"/> 재외국민(면접)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학생부종합(면접)
전 형 명	2023학년도 수시모집 KGU학생부종합전형(디자인비즈)	
계열(과목) 및 문항번호	예체능계 / 문항 A	
출 제 범 위	교육과정 과목명	미술
	핵심개념 및 용어	미술, 사회와 함께하다 미술을 통한 사회참여
예상 소요 시간	60분	

2. 문항 및 자료

열린 공간에서 대중화 호흡하는 공공 미술은 미술작품이나 행위에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 사회현상에 대한 작가의 의식을 표현하기도 한다. 정치적 이슈나 도시 환경 문제 등 현대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다룸으로써 대중의 관심을 모으고 건설적 미래를 위한 사회 참여를 유도한다,

지역사회 미관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에 벽화를 그린다면 어떤 의미를 담은 그림을 그려야할까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그 의미를 기술하고 벽화를 스케치해서 표현해 봅시다. 예를 들면 공원주변, 골목길, 재래시장, 학교 그 외에 소외된 공간 등 우리 주변의 장소를 선정해서 장소의 의미와 그림을 표현하시오.

3.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교육과정	교육부 제2015-74호 [별책 13] “미술과 교육과정”		
관련성취기준	1. 교과명: 미술		
	과목명: 미술		관련
	성취 기준 1	[12미01-03] : 현대의 사회 현상과 문제를 이해하고 미술을 통한 참여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문항A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 여부
미술	최찬경 외	금성출판사	2020	22-25	문항A	×
미술	안혜리 외	지학사	2020	24-25	문항A	×
미술	조우호 외	미래엔	2020	18-23	문항A	×

4. 평가 방향 및 고려사항

◎ 평가 방향
①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는가? [추론력, 이해력, 분석력, 논리력]
② 아이디어가 독특하고 스케치는 창의적인가? [구성력, 표현력]
③ 설명은 구체적이고 나름의 의미가 있는가? [논리력, 표현력]

● 평가 시 고려사항

- ① 주제의 선정과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
- ② 아이디어가 재미있는가?
- ③ 설명이 논리적인가?

5. 채점 기준

등급	요건
A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B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아이디어 사고과정과 표현능력이 다소 미흡한 경우
C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답변의 근거로 제시하는 내용이 논리성과 설득력에서 다소 미흡한 경우
D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답변의 내용과 근거가 미흡한 경우
E	답변을 거의 하지 못하는 경우

문항 6

1. 일반정보

유 형	<input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교직 적 · 인성검사
	<input type="checkbox"/> 재외국민(면접)	<input type="checkbox"/> 학생부종합(면접)
전 형 명	정시 ‘다’ 군 유아교육과 적 · 인성검사(적성)	
계열(과목) 및 문항번호	사범계열	
출 제 범 위	교육과정 과목명	사회문화
	핵심개념 및 용어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 지속가능한 사회, 환경문제에 대한 윤리적 쟁점

2. 문항 및 자료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심각한 기후변화의 문제(지구 온난화)를 경험하고 있다. 미래 시대를 살아갈 젊은이로서, 그리고 유아 교사 지원자로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학생의 생각을 말해 보시오.

3. 출제 의도

현재 국내외 중요한 환경적 이슈에 대해 예비교사로서 관심을 가지고 잘 이해하고 있는가?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교육과정	교육부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성취기준	1. 교과명: 사회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 기준 1	[12사문05-04] :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세계시민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가진다.	적성 문항1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 여부
사회문화	김영순 외	교학사	2020	197-207	적성문항1	×
사회문화	신형민 외	비상교육	2020	185-191	적성문항1	×

5. 평가 기준

● 평가 기준

- ① 예비교사 지원자로서 중요한 환경적 이슈를 잘 이해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 ② 사고와 답변의 논지가 명료하고 일관성이 있는가?
- ③ 언어적 표현이 정확하고 유창한가?

문항 7

1. 일반정보

유 형	<input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교직 적 · 인성검사
	<input type="checkbox"/> 재외국민(면접)	<input type="checkbox"/> 학생부종합(면접)
전 형 명	정시 ‘다’ 군 유아교육과 적 · 인성검사(인성)	
계열(과목) 및 문항번호	사범계열	
출 제 범 위	교육과정 과목명	사회문화
	핵심개념 및 용어	사회적 지위와 역할

2. 문항 및 자료

지금까지 학생이 배웠던 선생님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훌륭한 선생님이 계신다면 어떤 점이 훌륭했는지 몇 가지 특성을 들어 말해 보시오.

3. 출제 의도

교사로서의 정체성과 사명감, 롤 모델에 대해 말할 수 있는가?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교육과정	교육부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성취기준	1. 교과명: 사회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 기준 1	[12사문02-02] :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의미를 설명하고 역할 갈등의 원인 및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	인성 문항1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 여부
사회문화	손영찬 외	미래엔	2020	63-66	인성문항1	×
사회문화	김영순 외	교학사	2020	63-68	인성문항1	×

5. 평가 기준

● 평가 기준

- ① 예비교사로서 교직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과 사명감이 있는가?
- ② 사고와 답변의 논지가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는가?
- ③ 언어적 표현이 분명하고 유창한가?

<부록 2>

KGU학생부종합전형 면접 예시문항

① 서류 진위 확인을 위한 신뢰성 검증 예시 문항

- ▶ 자소서 1번의 내용 중 시나리오의 종류에 따른 특성을 정리하여 수업 시연을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자소서에 언급한 영화 시나리오, 게임 시나리오 외에 또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지, 그리고 영화와 게임 시나리오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시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 ▶ ** 프로그램을 하면서 학급 활동을 뛰어난 리더십으로 이끌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였나요?
- ▶ 멘토링 활동에서 자신의 공부법을 점검해서 친구들에게 가르쳐주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어떤 공부법이었는지 설명해주세요.
- ▶ ‘***’ 책을 읽고 여러 나라의 도서관 문화를 파악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본인에게 가장 흥미로웠던 도서관은 어느 도서관인지와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 동아리 활동에서 북큐레이션 기획 활동을 여러 가지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설명해주세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활동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국사 십자말 퀴즈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해 보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였는지와 준비 과정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주세요.
- ▶ 미래 로봇 산업의 발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계기와 이를 통해 얻은 결론이 무엇인지 내용과 함께 설명해주세요.
- ▶ 친환경 패키지 디자인을 주제로 신문 제작 활동에 참여하였는데 해당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와 탐구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 ▶ 동아리 활동에서 우리나라 캐릭터 디자인의 문제점에 대하여 탐구하였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본인이 생각하는 해결방안은 무엇인가요?

② 사회영역(인성, 공동체의식) 관련 예시 문항

- ▶ 멘토링 활동과 교육 봉사 활동을 꾸준히 해 온 것으로 확인되는데 자신만의 교수법과 노하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활동이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야기해주세요.
- ▶ 방송부 활동을 하면서 동아리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례가 있다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 ▶ 3년 동안 학급임원으로 활동하였는데 활동을 하며 어려움은 없었나요? 있다면 어떻게 극복하였고 학급임원으로서 활동을 지속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 또래 학습 멘토 활동 기록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진행하였고, 이 활동을 하면서 멘티에게 어떤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는지 이야기해주세요.
- ▶ ** 과목의 모듈활동에서 리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힘들었던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와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모색하였는지 설명해주세요.

③ 잠재역량(전공 관련 활동 및 경험, 발전가능성)에 관한 예시 문항

- ▶ 사회문제탐구 세특 기록에서 통신언어에 관해 조사하고 탐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통신 언어의 특성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자료는 어디서 어떻게 찾았는지 설명해주세요.
- ▶ 건축물에 사용된 미적분 원리에 대해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주요 내용은 무엇이며 관련된 자료는 어디서 어떻게 찾았나요?
- ▶ 문화예술 콘텐츠에서 스토리텔링이 차지하는 비중에 관한 탐구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필요한 자료는 어떻게 수집하였는지와 탐구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 ▶ 미디어의 종류와 미디어가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자료 수집 방법과 내용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 선형회귀분석을 사용하여 학습시간과 성적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 ▶ 초고층 건물에 대해 조사해 발표하였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은 무엇이며, 초고층을 구성하는데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부록 3>

논술우수자전형 응시자 대상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경기대학교에서는 [공교육정상화법] 제 10조에 따라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학년도 경기대학교 논술고사 응시자를 대상으로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각 설문 항목에 대하여 솔직하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 비밀의 보호 조항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문의: 경기대학교 입학사정관실(031-249-1342)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정도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논술전형을 준비하며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넘는 개념 등을 학습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	본교 논술전형은 고등학교 교과 내용보다 심화된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논술고사 문제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기본 개념들을 이용하면 충분히 서술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4	논술고사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제시문에 충분히 제공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5	논술고사 논제의 어휘나 표현이 요구사항을 이해하는데 어려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6	논술고사의 시험시간(120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7	논술고사 제시문의 길이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8	본교에서 실시한 모의논술고사에 참여하였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9	모의논술고사에 참여하였다면, 실제 논술고사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부록 4>

KGU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 응시자 대상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경기대학교에서는 [공교육정상화법] 제 10조에 따라 본교의 입학전형이 선행학습 유발 여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학년도 KGU학생부종합전형 응시자를 대상으로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각 설문 항목에 대하여 솔직하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 비밀의 보호 조항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문의: 경기대학교 입학사정관실(031-249-1342)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정도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순 번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을 준비하며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넘는 개념 등을 학습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	본교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은 고등학교 교과 내용보다 심화된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면접에서 받은 질문 중, 교과보다 심화된 지식을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4	면접에서 받은 질문이 고등학생의 사고 수준에서 답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5	면접에서 받은 질문의 내용이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등 제출 서류를 중심으로 제시되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6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과정에서 면접평가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2023년 2월 16일 인쇄

2023년 2월 16일 발행

발 행 처 경기대학교 입학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산로 154-42 (이의동)

경기대학교 입학처

Tel) 031-249-8676~7, 9560~2

Fax) 031-249-8678

※ 이 보고서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허락 없이 변경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